

올키즈스트라

2014~15 사업성과 보고서

All kids tra.

올키즈스트라

2014~15 사업성과
과정영양과
보고서

All kids tra.

목 차

I.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및 진행과정	5
1.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6
2. 올키즈스트라 진행과정	12
II.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	17
1. 자료수집	18
2.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	19
III. 평가연구방법	29
1. 평가방법론의 선택	30
2. 연구대상	31
3. 측정도구	34
IV. 음악 여부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43
1. 일반현황	44
2. 음악하는 집단과 음악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분석	47
V. 음악 프로그램별(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성과 평가 결과 ·	51
1. 일반현황	52
2. 음악 프로그램별 비교 분석	57
VI.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평가 결과	63
1. 지역관악단별 비교분석	64



2. 미니오케스트라별 비교분석	66
3. 악기별 비교분석	68
4. 참여기간별 비교분석	71
5. 연습시간별 비교분석	73
6. 경제상황별 비교분석	75
7. 성적별 비교분석	77
8. 연령별 비교분석	81
VII. 음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83
VIII. 올키즈스트라 중간종결 아동 분석	93
1. 중간종결 아동 일반 현황	94
2. 중간종결 아동과 사업참여아동 비교	96
3. 중간종결 아동 설문 분석 결과	98
IX.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결과	105
1.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개요	106
2. 지역관악단 과정평가를 통한 기본현황	110
3.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결과	114
X.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분석의 시사점	117
첨부	121

1.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및 진행과정

1.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2. 올키즈스트라 진행과정

All
kids
tra.

1. 올키즈스트라 사업개요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는 “모든 아이들의(All kids) 희망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라는 의미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음악교육프로그램이다. 악기제공, 음악교육, 합주, 관악단 활동,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등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우는 것을 본 사업의 목표로 한다.

1) 사업배경

한국사회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이 학교 성적으로만 평가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향해 모든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동·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음악교육을 비롯한 예체능 교육은 축소되고 전공자 양성 위주의 교육만이 남아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1:1 사교육 중심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반가정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긍정적 경험의 기회가 적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오케스트라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조화로운 삶’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관악 오케스트라’(Community Youth Wind Orchestra)를 운영하였으며, 2015년 12월 현재, 서울 은평, 경기도 안양군포, 충남 청주, 금산, 경남 김해의 5개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아이들 중 오디션을 통하여 정예단원을 선발, 상위 관악단(honor Wind Orchestra)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2)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특징

(1) 관악 중심의 오케스트라

한국의 다른 유사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은 대부분 현악기 혹은 관현악 오케스트라인데 반해, 올키즈스트라는 100% 관악 중심이다. 올키즈스트라는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한국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현실에서 관악기가 소통과 표현의 도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며, 관악단이 주는 경쾌함과 웅장함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고 보았다.

(2) 사업의 지속성

올키즈스트라는 안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음악’이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며,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생산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악기경험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2015년 12월 현재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관악단 중 초기부터 참여한 은평, 안양군포 관악단은 7년째 지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거나 최대 3년의 지원이 대부분인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매우 드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본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중, 고등학생으로 자라고 중고등학생 때 본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으로 성장하여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입시위주의 교육실정 상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관악단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유사기관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비해, 올키즈스트라는 초, 중, 고등학생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는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선배와 후배 사이의 건강한 역동이 발생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3) 유연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은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처럼 대부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경우가 많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자원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지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그 특성상 매우 경직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올키즈스트라는 순수 민간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수정·보완·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지역협력

올키즈스트라의 5개의 지역관악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올키즈스트라 각 관악단의 특성에 맞게 각 지역에서 지역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관악단이 합주를 할 때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하고 있으며, 김해관악단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받아 지역에 연습실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들에서 공연을 하면서 지역내에서 올키즈스트라 사업을 알리고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하여 참여아동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있다.

(5) ‘인큐베이팅-자립’ 모델의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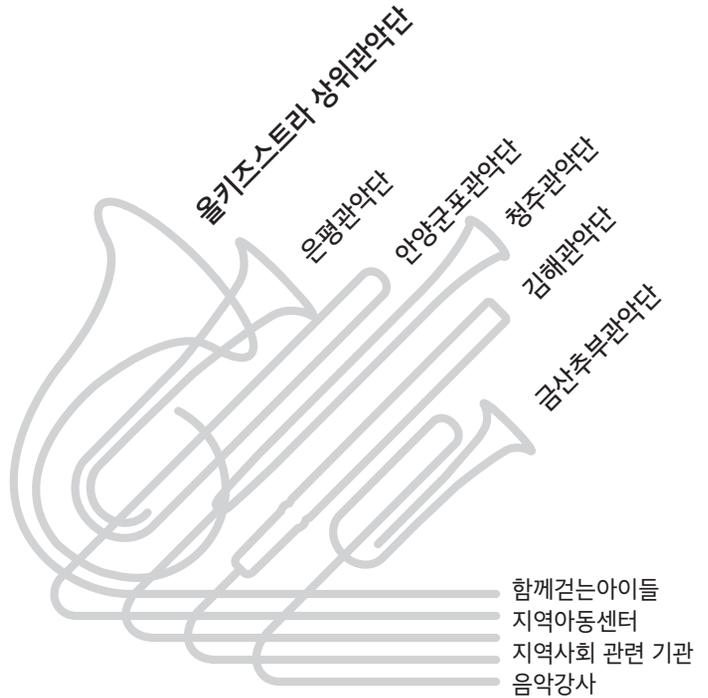
한 관악단이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고, 아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긍정적 성장이 가시화되어 자리잡으면, 지역에서 이 관악단이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올키즈스트라는 새로운 지역을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3) 사업개요

(1) 올키즈스트라 구성

[그림 I -1] 올키즈스트라 구성

올키즈스트라는 2015년 12월 현재 5개의 지역관악단과 1개의 상위관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관악단별로 45~5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275명(지역관악단 227명, 상위관악단 48명)의 단원이 참여하고 있다. 단원들은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복지기관 혹은 지역 내 문화기관을 다니는 아동들로 지역 내의 복지기관(대부분 지역아동센터)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사업 개요

① 대 상

악기연주와 관악단 활동에 관심이 있으나 음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지역사회 거주 아이들(저소득 가정 아동 참여비율 70% 이상)

② 지원 내용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에 지원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음악교육에 필요한 악기제공

- 전문레슨강사 지원, 개인 및 그룹레슨진행
- 음악기초이론 교육
- 관악단 활동단원의 기회 제공
- 앙상블 연습 프로그램 ,합주진행
-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초청공연 연주기회제공
- 음악캠프, 정기연주회 개최
- 문화예술 공연관람

③ 사업 흐름도

가. 1단계_음악기초교육

음악교육에 필요한 선행 이론학습으로 악기와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흥미를 유발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며, 2014년에는 함께걷는아이들에서 기초이론교육메뉴얼집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 강사들 중 기초이론전담 강사 1인이 10회기 기초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에 레슨강사가 지속적으로 악기 레슨에 음악기초교육 내용을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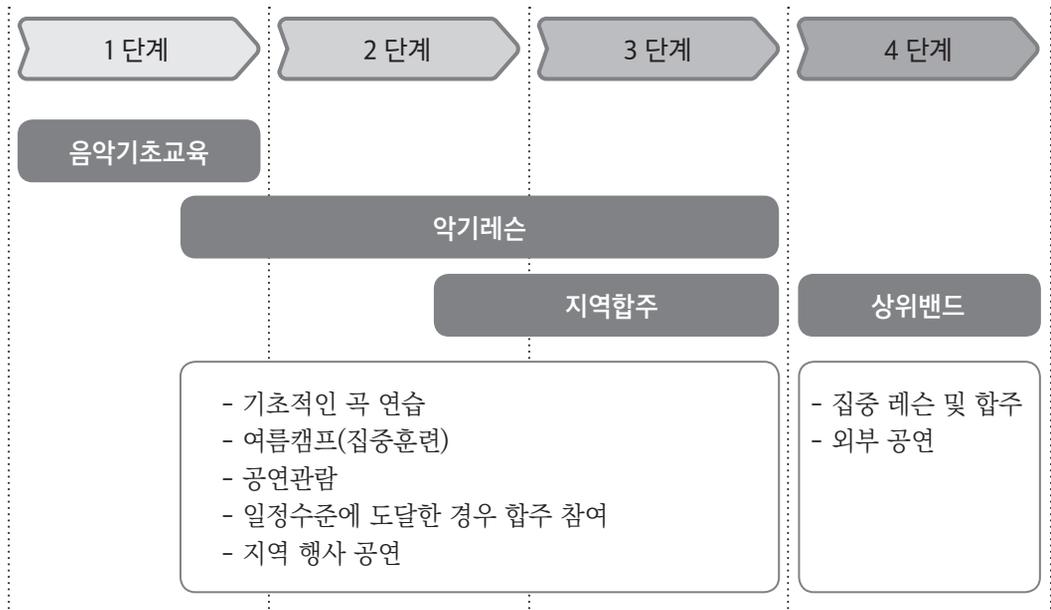
나. 2,3단계_악기레슨 및 지역합주

- 지역관악단의 경우 각 지역별 운영주체와 울키즈스트라 사업협약기간까지 아이들이 최소 주 1회 전문강사에게 악기 레슨을 받게 되며, 최소 월 2회 이상 합주가 진행된다. 지역별로 횟수는 조금씩 상이하되, 그룹레슨과 합주를 필수로 진행하는 골자이다. 각 복지기관에서 자체연습을 진행하거나, 연습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연습실에서 최소 주 1회 이상의 연습을 권장하고 있다.
- 악기레슨은 울키즈스트라에서 개발한 기본 커리큘럼과 주교재에 따라 진행되며, 합주는 월2회 악기별 단원들이 다함께 모여 합주곡을 연습하고 지역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다. 4단계_상위관악단

- 상위관악단은 올키즈스트라 참여 아이들의 실력이 성장함에 따라, 상위실력을 가진 관악단 창단에 대한 아이들과 함께걷는아이들의 욕구로 시작되었다.
- 2012년 창단 이후 음악가로서의 '꿈'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으며, 한 단계 높은 연주 실력과 외부 공연활동으로 지역 관악단원들의 롤 모델이 되고있다.
- 매해 지역관악단을 포함하여 학교관악단, 복지기관, 지역문화센터, 일반가정 등에서 단원들을 공개모집하여 오디션을 통해 연주실력과 열정을 갖춘 아이들을 선발한다. 선발된 단원들은 매주 1회 레슨과 집중 합주를 진행한다.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 1회 단독 정기연주회를 가지며, 각종 관악대회와 관악제 출전, 굴지 교향악단과의 협연 등으로 아이들의 실력과 정서적 성장이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 음대진학을 꿈꾸는 친구들의 전공지원사업, 음대장학금지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8명의 아이들이 연 500만원 지원으로 전공생의 꿈을 키우고 있다.

[그림 I -2] 올키즈스트라 음악교육단계



2. 올키즈스트라 진행과정

올키즈스트라 사업은 2009년 사단법인 부스리기사랑나눔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우리 동네 베토벤 바이러스를 찾아라'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6개의 관악단과 2개의 합창단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0년 5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을 창립하면서 사업명을 [함께 연주하는 아이들]로 바꾸고 4개의 관악단과 2개의 합창단을 지속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꿈연아」빅밴드를 창단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4개의 관악단과 1개의 빅밴드, 1개의 합창단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11월에 상위관악단 오디션을 시행하여 상위관악단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2012년에는 사업명을 [올키즈스트라]로 정하고, 3개의 지역관악단과 1개의 상위관악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음악사업에 년 500만원씩 17개소를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4개의 지역관악단과 1개의 상위관악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음악지원사업 년 500만원씩 15개소를 지원하였다. 2013년은 특별히 관악단 운영을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에서 운영주체를 지역 컨소시엄 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역에서 운영되도록 하였다. 지원기간도 1년단위로 진행되던 것을 18개월로 연장하여 18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관악단을 선정하고 지원하였다.

2014년은 한국타이어의 후원으로 금산관악단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2013년 공모로 지원되는 사업이 2014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2014년 9월에는 새롭게 공모로 운영단체를 선정하면서 기존의 5개의 지역관악단(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5개의 미니오케스트라(20~25명 규모)를 새롭게 지원하였다. 문화소외지역 음악지원사업은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4년은 특별히 상위관악단의 큰 무대 공연의 경험이 많았는데 제주국제관악제, 대한민국국제관악제, KBS교향악단과 한 무대에 선 한국형가리 수교 25주년 기념 '나눔과 희망' 음악회 등에서 국내외의 오케스트라와 한무대에 서는 경험을 하여 크게 성장하는 한해였다.

2015년은 2014년에 지원되었던 관악단(지역, 상위), 미니오케스트라, 음악교육 지원사

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되었다. 지역관악단 운영에 있어, 법인은 ‘10년차 장기방안 운영모델’을 마련·지원하는데 집중하고, 각 지역은 ‘자립에 대한 계획과 추진’을 골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위관악단은 지역관악단 출신의 아이들 구성에서, 다양한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연주실력 또한 크게 향상되면서 ‘대한민국국제관악제 동호인밴드 경연대회 3위’ 수상, 2천명의 시민과 함께한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충전콘서트’, KBS홀에서의 제 7회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연주의 기회를 가졌다. 올키즈스트라 음악전공생 지원사업을 통해 7명의 친구들이 음악전공준비와 3명의 음대 진학생이 배출되는 등 올키즈스트라 지원사업과 상위관악단과 그 아이들의 도약이 있는 한 해였다.

[표 I -1] 올키즈스트라 사업진행과정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베토벤 바이러스를 찾아라’ 프로그램 창단(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 위탁) - 발레야반가워, 클래식원정대 등 동기유발 프로그램 시행 - 서울(은평, 서대문, 성북), 경기(안양군포, 김포)지역 5개 관악단, 서울(은평), 경기(성남) 지역 내 2개 합창단 운영, 350명의 아이들 악기 및 합창레슨 - 제1회 음악캠프 시행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창립 및 법인설립허가 - 사업명을 Music With Us로 전환하면서, 서울(은평, 서대문), 경기(안양군포, 김포) 지역 4개 관악단, 서울(은평), 경기(성남) 지역 내 2개 합창단 운영, 270명의 아이들 악기 및 합창레슨 - 제1회 정기연주회 시행 - 제2회 음악캠프 시행 - 들꽃「꿈연아」빅밴드 창단 - 초청공연행사 지원(여성단체연합 후원의 밤, 은평사랑나눔대축제 등)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은평, 서대문), 경기(안양군포, 김포)지역 4개 관악단, 들꽃(서울신림, 경기안산 그룹홈)1개 빅밴드, 서울(은평) 1개 합창단 운영, 230명의 아이들 악기 및 합창레슨 - 지역별 음악캠프(경기권, 서울권, 들꽃지역) - 제2회 정기 연주회 시행 - 상위관악단 오디션시행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올키즈스트라]로 변경 - 서울(은평), 경기(안양군포, 김포), 상위관악단 4개의 관악단을 운영 - 17개 아동복지시설에 음악지원사업(개소당 년500만원)을 지원함. - 제3회 연합 음악캠프 시행 - 제3회 정기 연주회 “성장통” 시행(2월) - 제4회 정기 연주회 “희스토리” 시행(11월) - 청와대 어버이날 공연, 한국타이어 신입직원 환영회 축하공연, 지역축제 공연 등 다수의 공연활동 진행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단 운영 확대 및 지원(4개 지역 관악단_ 서울 은평, 경기 안양군포, 충북 청주, 경남 김해, 1개 상위관악단 총 5개 관악단 운영) - 운영주체 변경 (재단주도->지역 컨소시엄) -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 제 5회 울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나눔콘서트 “결”시행(11월) - 2차례 여름음악캠프시행(지역관악단캠프/ 상위관악단캠프) - 다양한 평가 시행(실력평가, 인지검사, 만족도 설문지, 동기부여 설문지, 과정평가) - 울키즈스트라 5년 이상 활동 강사진으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 - 울키즈스트라 앙상블집(초,중급) 개발 - 강사 교육(2회), 워크숍(1회)시행 - 홍보대사 위촉: 탤런트 이서진, 배우 신구, 발레리나 김주원 - (주) 한국타이어 프로젝트 어워드 초청 관악단 연주(2.1) - 은평지역 상상축제 관악단 연주(5월), 부스러기 토크콘서트 금관앙상블연주(9월), 은평 힐링콘서트 목관앙상블 연주(10월) 등 상위관악단 다수 공연 진행 - 각 지역별 연 3회 이상의 다수 공연 진행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타이어 후원 충남 금산추부관악단 운영주체 공모, 선정, 사업설명회, 협약, 아이들 선발, 운영 시작 - 관악단 운영 확대 및 지원(5개 지역 관악단_ 서울 은평, 경기 안양군포, 충북 청주, 경남 김해, 충남 금산, 1개 상위관악단 총 6개 관악단 운영) - 지역관악단별 운영위원회, 홍보모금위원회 조성/ 자립방안 모색, 움직임 - 제 5회 울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 나눔콘서트 “선물”시행(12월) - 지역관악단 여름음악캠프시행 - 사업평가 진행(실력평가, 인지검사, 만족도 설문지, 동기부여 설문지, 과정평가) - “미니오케스트라” 5지역 시행(경기 부천, 경기 김포, 충남 아산, 경남 창원, 제주) - 저소득소외계층아이들 중 음악에 재능과 재미를 느끼는 아동 7명 “꿈나무반” 시행 - 콘텐츠 내실화(커리큘럼앙상블집 수정·보완, 울키즈스트라 주교재 선정, 음악기초 이론교육집 발행) - 강사 교육 시행(3회) -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 시각의 다양화, 진로지도 등의 다각적 지원을 위해 ‘울키즈스트라 멘토위원회’ 창단(8명 참여, 전공희망 학생 원포인트레슨 1회 연계) - 지역 중심의 목관앙상블, 금관앙상블 창단 및 연주활동 - 김해관악단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희망TV 출연(11월), 생생정보통 정기연주회 방영(12월) - 제주국제관악제참여(8월), 제5회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참여(9월), 한국형가리 수교 25주년 기념 ‘나눔과 희망’음악회 참여(9월) 등 상위관악단의 다양한 연주활동 - 각 지역별 연 5회 이상의 다수 공연 진행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단” 운영(5개 지역 관악단_ 서울 은평, 경기 안양군포, 충북 청주, 경남 김해, 충남 금산, 1개 상위관악단 총 6개 관악단 운영) - 5개 지역 “미니오케스트라” 운영(경기 부천, 경기 김포, 충남 아산, 경남 창원, 제주) - 13개 지역 “음악교육지원사업” 운영(경기 남양주, 강원 춘천 외 11지역) - 지역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음악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409명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주한 제1회 울키즈페스티벌 개최(마포아트센터, 3월) - 기본, 복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주제로 39명의 강사가 참여한 강사교육 시행 - 지역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별 단독 여름음악캠프/ 연주회 시행 - 사업평가 진행(사후평가, 인지검사, 만족도 설문지, 과정평가) - 저소득소의계층아이들 중 음악에 재능과 재미를 느끼는 아동 12명 “꿈나무반” 운영 - 상위관악단 가족 초대 음악회 Thank you Concert, 음악진로설명회(5월)/ MT(1월)/, 또래운영회 조직 및 회의(4,7,10월)/ 보호자, 각 소속 지역아동센터에 분기별 소식지 발송 등 신규 프로그램 시행 - 대한민국국제관악제 동호인밴드 경연대회 3위 수상(8월)/ 약 2천 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한 여의도 물빛무대「한강충전콘서트」시행(10월)/ 제7회 정기연주회 ‘보물섬’ 시행(여의도 KBS홀, 11월) - 악기기부캠페인 “울키즈기프트” 시행 - 2016-17년 공모사업(지역관악단, 관악양상블) 공모
-------	---

II.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

1. 자료수집
2.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

All
kids
tra.

1. 자료 수집(Data Source)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에 의한 결과물(Outcome)에 대한 자료 수집과 자료수집 시기는 아래와 같다.

[표 II-1] 올키즈스트라 평가 자료수집

시기	Outcome	Data Source	자료수집시기
단기	- 아동의 음악실력 · 아동연주실력, 기초음악지식 · 합주실력	지휘자 Test 연주회 공연	3월,8월 연주회시
	- 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아동설문지	사업초기 /종료시
	- 아동의 몰입, 동기부여 - 아동의 자존감 - 인지능력	아동설문지 Interview, Focus Group	
	- 오케스트라 인지도 생성	지역사회관련자 설문/행사요청건수	
중기	- 협동심, 화합능력, 하모니 - 배려, 공감 - 아동의 사회성 : 친구관계, 가족관계 - 아동의 진로성숙도, 미래에 대한 기대 - 자기관리(Self-discipline)	아동설문지 Interview, Focus Group 아동설문지	사업초기 /종료시
	- 음대 진학 사례	음대진학사례	해당시기
	- 가족의 관악단 및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설문지, 인터뷰	필요시
	-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현황 및 실적조사	사업종료시
	-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관심 증가	설문/실태조사	
장기	- 올키즈스트라 인재상을 실현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 올키즈스트라 출신 선배의 후배지도 - 재능의 사회환원	사례연구	필요시
	- 가족의 지지와 후원 / 운영에 참여	인터뷰	필요시
	-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참여 증가 - 오케스트라 관련 인프라 축적 - 지역사회내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	설문 / 실태조사	필요시 7년 이후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입증 및 효과 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회지표 분석	7년 이후
	- 문화 예술관련 정책 변화	정책자료	

2. 올키즈스트라 로직모델

1) 궁극적인 목적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로직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Desired Results)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확정하였다.

올키즈스트라는 다음의 세가지를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 (1) 모든 아동·청소년이 음악을 통하여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 (2)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 (3)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한다.

2) 사회적 배경

위와 같은 목적을 설정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자신감 결여,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성향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과 비행율, 그리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폭력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보호자의 관심, 정보력, 경제력이 낮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 복지 프로그램이 대부분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고 있어서 특히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비용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혜택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입시위주의 공교육 커리큘럼에서 음악이 점차 배제되어 감으로써 비싼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전공 준비생 또는 소수의 부유층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음악교육의 기회에

서 점차로 멀어져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음악, 특히 악기를 배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음악강사의 경우에도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음악으로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도하는 ‘교사’라기 보다는 단순히 연주 기술을 가르치는 ‘기능인’으로서만 자리매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3) 프로그램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한 올키즈 스트라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 악기대여, 악기레슨, 악기연습, 오케스트라 합주, 음악이론교육
- 음악캠프, 정기연주회
- 지역행사, 초청공연(관악단, 앙상블)
- 문화예술 공연관람
- 음악실력 평가

(2) 강사, 기관,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

- 음악강사 양성교육, 참여기관 교육
- 지역사회 기관 연계, 미팅
- 레퍼토리, 커리큘럼 개발
- 관련 자문 전문가 미팅
- 부모간담회, 설명회, 가족참여 행사 등
- 자원봉사자, 매니저 활동

4) 산출

올키즈스트라 사업 실행으로 얻는 산출과 그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관련

- 프로그램 참여아동수, 참여시간, 출석률
- 연주캠프, 연주회 횟수, 참여자수, 만족도
- 지역행사 횟수, 참석자수
- 공연관람 횟수, 참석자수

(2) 강사, 기관, 지역사회 관련

- 강사, 기관교육 횟수, 참석자수
- 지역사회기관 연계, 미팅 횟수, 연계기관 개수
- 레퍼토리,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여부
- 관련자문 전문가 미팅 횟수, 연계전문가 수
- 부모간담회, 설명회, 가족참여행사 등 횟수, 참여자 수
- 자원봉사자, 매니저 활동시간, 지속율 등

5) 결과물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결과물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었으며, 단기는 3년 이내, 중기는 3~7년 이내, 장기는 7년 이상의 결과로 보았다.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도구들은 문헌연구와 음악 강사와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설계되었다. 아동의 변화 중 협동심이나 배려, 공감, 자기관리 등은 아직 적절한 측정도구를 찾지 못하여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사회 관련된 일부 결과물은 과 정평가서를 통하여 반영하였다. 가족의 관심과 변화에 대한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

였으며, 장기 결과물은 향후에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 단기 결과물

단기 결과물은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아동 개인에게 나타난 변화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나타난 변화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① 아동

- 참여아동·청소년의 음악실력 향상 : 음악 실력의 향상은 연 2회 악기실력 테스트로 평가하며 연 1회 있는 정기연주회로 관악단의 실력을 평가받는 기회를 갖는다.
- 아동의 몰입, 동기부여 향상 : 악기를 배우는 것에 몰입하고 동기부여 되는 정도는 기존 개발된 척도와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평가한다.
- 자존감 향상 : 기존 문헌 연구들은 음악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음악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보고 있는 바, 본 사업에 참여한 이후 자존감 향상 정도를 기존에 개발된 척도로 측정, 평가하였다.
- 인지능력 향상 : 음악활동을 통해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음악이 아동의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를 아동 지능검사(웁슬러검사)로 평가하였다.
- 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보며, 설문을 통하여 평가한다.

② 가족 및 지역사회

- 본 오케스트라의 인지도 생성 :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알려지고 지역 행사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공연횟수 및 지역사회 설문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2) 중기 결과물

사업 시작 후 3~7년 이내에는 아동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좀 더 같이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전체적인 활동과 나아가 본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보았다. 가족 및 지역사회에는 좀 더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로 보았다.

① 아동

- 협동심 향상 : 올키즈스트라 사업이 단지 개별적인 악기를 배우는 사업이 아니라 합주로 함께 음악을 만드는 오케스트라 사업인 만큼 이를 통한 협동심을 성과로 잡았다. 2012년 평가에서 협동심을 기존에 개발된 척도와 인터뷰로 평가하였으나 척도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오케스트라에서 향상되는 협동심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배려, 공감 : 협동심과 유사하게 오케스트라 합주에 참여하면서 3년이 지나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이 향상된다고 보았으나, 아직 적절한 척도를 찾지 못하여 실질적인 평가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 사회성(친구관계, 가족관계) 향상 :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면서 친구관계와 가족관계가 원만해지고 가족과의 친밀도와 관계가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기존에 개발된 척도로 평가했다.
- 아동의 진로성숙도, 미래에 대한 생각 : 올키즈스트라 사업을 통하여 참여아동·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포부를 좀 더 가지게 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성과를 설문으로 측정했다.
- 자기관리 : 참여아동들이 이전보다 좀 더 시간을 지키고 전체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전체적인 진행에 본인의 시간이나 욕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자기관리 능력을 중기 결과물로 보았다. 이에 대한 평가와 척도는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음대 진학 사례 :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주 목적이 전공생을 양성하는데 있지는 않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특히 상위관악단의 기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음악에 재능과 관심을 가진 참가자들 중에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음대에 진학하는 사례들이 점차로 늘

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음대 진학하는 사례를 사업의 중기 결과물의 하나로 고려했다.

② 가족 및 지역사회

- 가족의 관악단 및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 가족들이 참여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가족 인터뷰로 평가했다.
-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관련기관들이 오케스트라 운영위원으로, 행사초대로, 자원봉사로, 연합 연주 등으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과정평가의 지역사회 연계 횟수로 평가했다.
-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점차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가 좀 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중기 결과물의 하나로 평가 지표에 포함시켰다.

(3) 장기 결과물

사업 시작 후 7년 이후에 나타나는 장기 결과물은 아동 개인에게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전반적인 문화예술 환경조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보았다.

① 아동

- 올키즈스트라 인재상을 실현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 올키즈스트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가지고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참여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올키즈스트라 사업 참여아동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므로 향후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올키즈스트라 출신 선배의 후배지도 : 고등학교를 졸업한 올키즈스트라 출신 선배 중

전공을 한 선배도 배출되고 전공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재능의 사회 환원 : 올키즈스트라 참여아동들이 그동안 배우고 받아온 것을 연주로, 자원봉사로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것을 장기적인 결과물로 보았다.

② 가족 및 지역사회

- 가족의 지지와 후원 / 운영에 참여 : 올키즈스트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족들이 아동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지와 후원을 하게 되고, 올키즈스트라 운영에 의견을 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부모와의 인터뷰나 설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참여 증가 :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아동이 단원으로, 성인이 자원봉사로 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 오케스트라 관련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내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자원들이 본 사업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축적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내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 오케스트라 활동이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아동이 늘어날 뿐 아니라 지역 음악 강사가 생겨나고 지역의 공연이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③ 문화예술 환경 조성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입증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음악이 전문 연주자를 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 문화예술 관련 된 정책의 변화 : 올키즈스트라 사업을 통해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고 보완되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장기 결과물로 보았다.

[그림 II -1] 울키즈스트라 로직모델

Desired Results	Motivation Conditions and Causes	Program Activities	Measure of Effort
<p>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심리, 정서, 사회적) 성장</p>	<p>[(저소득)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자신감 결여,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 등 <p>[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관심, 정보, 경제력 문제 	<p>[아동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대여, 레슨, 연습, 합주, 이론교육 - 캠프, 연주회 - 지역행사, 초청공연 (관악단, 앙상블) - 문화예술공연관람 - 음악실력평가 	<p>[아동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아동수, 참여시간, 출석율 - 캠프, 연주회횟수, 참여자수, 만족도 - 지역행사(초청공연)횟수, 참석자수 - 공연관람횟수, 참석자수 - 음악실력평가여부
<p>(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p>	<p>[지역사회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발적 프로그램 위주의 복지 현장,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부족, 활동 부족 	<p>[강사, 기관, 지역사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기관교육 - 지역사회기관연계, 미팅 - 레퍼토리, 커리큘럼개발 - 관련자문전문가미팅 - 부모간담회, 설명회, 가족참여행사등 - 자원봉사자, 매니저활동 	<p>[강사, 기관, 지역사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기관교육횟수, 참석자수 - 지역사회기관연계, 미팅횟수, 연계기관갯수 - 레퍼토리, 커리큘럼 개발, 실행여부 - 관련자문전문가미팅 횟수, 연계전문가수 - 부모간담회, 설명회, 가족참여행사등횟수, 참석자수 - 자원봉사자, 매니저활동 시간, 지속율
<p>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문화예술환경 조성</p>	<p>[사회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음 (고비용, 공교육에서의 음악활동 부재 등) -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문화예술강사 양성 못함 		

Output		
단기	중기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음악실력 향상 (연주실력, 기초음악지식, 합주실력) - 아동의 몰입, 동기부여 - 자존감 - 인지능력 향상 - 아동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심, 화합능력, 하모니 - 배려, 공감 - 사회성 (친구관계, 가족관계) - 아동의 진로성숙도 (미래에대한생각) - 자기관리 (Self-discipline) - 음대진학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키즈스트라 인재상을 실현하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 울키즈스트라 출신 선배의 후배지도 - 재능의 사회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케스트라 인지도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관악단 및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관심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지지와 후원/운영에 참여 -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참여 (인적, 문적자원연계) 증가 - 오케스트라 관련 인프라 축적 - 지역사회내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 입증 및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문화예술교육관련 정책 변화

Ⅲ. 평가연구방법

1. 평가방법론의 선택
2. 연구대상
3. 측정도구

All
kids
tra.

1. 평가방법론의 선택

올키즈스트라 평가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표Ⅲ-1] 프로그램 평가방법론

	과정(Process) 평가	결과 (Outcome) 평가
정성적 (Qualitative) / 기술적 (Descriptive) 데이터	개방형 설문 (Open-Ended Survey)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프로그램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 (e.g. 음악 기초 교육에 대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개방형 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기대되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형태 (e.g. 올키즈스트라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아동들의 협동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정량적 (Quantitative) 데이터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측정한 수치로 표현된 데이터로, 이 수치는 일정 기간이나 시점에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snapshot 이나 변화 추이 (e.g. 분기별 출석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형태	실험 또는 준실험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추출한 어떤 효과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에 대해서 두 집단이 유의미하게 다른가 하는 여부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형태

출처: Harris (2011) "Afterschool evaluation"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결과(Outcome)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9월에 사전테스트(pre-test)를 진행하였고 15개월 후인 2015년 11월에 사후테스트(post-test)를 진행하였다. 비교집단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아이들 중 음악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음악 프로그램은 관악단(40명 이상 규모), 미니오케스트라(20명 이상 규모), 악기레슨(7~10명 규모) 그룹으로 3개의 그룹을 모두 사전/사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비교평가하였다.

결과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각 관악단별로 **올키즈스트라 운영의 투입/과정/산출/결과를 평가하는 평가틀을 개발하여 운영의 과정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대상

올키즈스트라 사업의 평가 분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 ①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에 대한 음악 프로그램의 성과 비교 분석
- ②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중 프로그램별(관악단/미니오케스트라/악기레슨) 성과 비교 분석
- ③ 올키즈스트라 사업 내부 성과 평가 분석 : 지역관악단별, 악기별, 참여기간별 등
- ④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성과 평가 분석
- ⑤ 중간종결한 아동에 대한 분석
- ⑥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670명(2015년 12월 현재)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사후 모두 설문에 참여한 아동 총 407명의 설문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 관악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전체 227명이었고 사전·사후 모두 설문에 참여한 아동이 총 164명, 미니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참여한 아동 216명 중 사전·사후 모두 설문에 참여한 아동이 총 109명, 악기레슨에 참여한 전체 아동 227명 중 사전·사후 모두 설문에 참여한 아동이 총 134명으로 아래 [표Ⅲ-2]과 같다.

그 외에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은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아동(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이지만 음악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37명의 아동이 사전·사후 모두 설문에 참여하였다.

사전설문은 2014년 9월에 진행되었으며, 사후설문은 2015년 11월에 진행되어 사전-사후 설문사이의 기간은 15개월 정도이다. 설문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우편과 메일로 수거하였다.

[표Ⅲ-2] 설문 대상

설문대상		대상아동	설문수거아동	수거율
음악 프로그램 참여아동	관악단_40명 이상 규모	227	164	72.2%
	미니오케스트라_20명 이상 규모	216	109	50.4%
	악기레슨_10명 미만 규모 ¹⁾	227	134	59.0%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		-	237	
합계			644	

[표Ⅲ-3] 울키즈스트라 및 비교집단 참여 아동복지기관

구분	지역	기관/시설명	음악 프로그램	설문참여 아동수
음악_관악단	서울 은평	갈현, 광현, 꿈이있는푸른학교, 유스광련, 조은아이들, 진관지역아동센터	관악단_40명 이상 아동 규모	23
	경기 안양, 군포	꿈세, 기쁨, 한무리, 희망나눔 지역아동센터		36
	충북 청주	경희, 꿈꾸는씨앗, 남청주, 방서, 용암, 에덴, 원광 지역아동센터		41
	경남 김해	불암, 삼정, 씨앗행복한홈스쿨, 어방, 은평, 인재, 풀코스모스 지역아동센터		30
	충남 금산	추부문화의집, 평화지역아동센터		19
	서울, 경기	서울은평지역, 경기 김포지역, 경기 안양 군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중 지역관악단을 참여했던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참여. 소속기관의 의미가 없음.		15
합 계				164
음악_미니오케스트라	경기 김포	만나, 하성, 하성제일지역아동센터	관현악_20명 이상 아동 규모	20
	경기 부천	골든벨, 경서, 꿈사랑, 영광, 오정, 지구촌, 한결지역아동센터		19
	충남 아산	방축, 비전1318, 연화, 온누리, 키움지역아동센터		20
	경남 창원	느티나무, 어울림지역아동센터		18
	제주	우리하도, 종달,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32
합 계				109

1) 관악단과 미니오케스트라는 악기레슨 이외에도 합주가 진행되었으며, 악기레슨의 경우에는 레슨만 받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지역	기관/시설명	음악 프로그램	설문참여 아동수
음악_악기레슨	강원 동해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관악, 현악 그룹레슨_10명 이내 아동 규모	9
	강원 삼척	꿈을이루는지역아동센터		18
	강원 춘천	햇살지역아동센터		10
	경기 남양주	명지꿈나무지역아동센터		17
	경기 남양주	미금제일지역아동센터		13
	경기 양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11
	경남 양산	양산 소망행복한홈스쿨		10
	서울 관악	은천지역아동센터		9
	전남 완도	충도지역아동센터		9
	대전	남대전지역아동센터		12
	충북 제천	이포봉양지역아동센터		11
	제주	조천지역아동센터		5
합 계				134
비음악	서울시 은평	진관, 광현 지역아동센터	음악 프로그램 참여안함	8
	경기 안양, 군포	한무리, 기쁨,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		15
	충북 청주	꿈꾸는씨앗, 경희, 남청주, 방서, 용암, 에덴, 원광지역아동센터		29
	경남 김해	씨앗행복한홈스쿨, 불암, 은평, 삼정, 어방, 인제지역아동센터		37
	충남 금산	평화지역아동센터		6
	경기 김포	하성제일지역아동센터		11
	경기 부천	지구촌, 영광, 한결, 골든벨, 꿈사랑, 오정동지역아동센터		50
	강원 동해	꿈나무지역아동센터		5
	강원 삼척	꿈을이루는지역아동센터		2
	대전	남대전지역아동센터		6
	경기 남양주	명지꿈나무, 미금제일지역아동센터		16
	서울 관악	은천지역아동센터		5
	충북 제천	이포봉양지역아동센터		6
	강원 춘천	햇살지역아동센터		8
	전남 완도	충도지역아동센터		1
	제주	해바라기, 조천지역아동센터		9
	합 계			

3. 측정도구

1) 척도

(1) 자존감, 사회성 척도

국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척도를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본 평가가 자아존중감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존감 척도로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I]을 사용하였다.² 본 척도는 Shavelson 외 2명(Shavelson, Hubner, and Stanton, 1976)이 자아개념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로, 비학습적 부분에 대한 4개의 하위영역_신체적 외모, 신체적 능력, 부모관계, 친구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적 개념에 대한 3개의 하위영역_일반적 학교생활, 읽기, 셈하기와 자아개념에 대한 1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자존감 측정으로 일반적 자아개념 문항을 본 설문에서 사용하였으며, 사회성 측정으로 친구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Ⅲ-4] SDQ-I 설문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사용여부
비학습적 영역 (Non-academic Self Concept)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	9	×
	신체적 능력(Physical Ability)	9	×
	부모관계(Parent Relation)	9	×
	친구관계(Peer Relation)	9	○
학습적 영역 (Academic Self Concept)	일반적 학교생활(General School)	10	
	읽기(Reading)	10	×
	셈하기(Mathematics)	10	
일반적 자아개념 (General Self)	자아개념(General-Self)	10	○

2) 본 척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논문은 아동·청소년들의 예술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Judith M. Burton, Rogert horowitz, and Hal Abeles(2008) Learning in and through the arts: the question of transfer. Studies in Art Education. Vol. 41. no. 3. 이다.

본 설문은 영문으로 된 문항을 번역하고,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문항이 결정되었다.

[표 III-5] 자존감 / 사회성 최종 문항

구분	SDQ- I 원문 문항	최종문항
자존감 문항	I do lots of important things.	나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Overall I am no good	나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
	In general, I like being the way I am.	지금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Overall I have a lot to be proud of.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I can't do anything right.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별로 잘하지 못한다.
	I can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만큼은 하는 편이다.
	Other people think I am a good person.	다른 사람들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 lot of things about me are good.	나는 뛰어난 점들이 많은 사람이다.
	I am as good as most other people.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뛰어나다.
	When I do something, I do it well.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잘 하는 편이다.
친구관계	I have lots of friends.	나는 친구가 많다.
	I make friends easily.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귈다.
	Most kids have more friends than I do.	대부분의 다른 애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
	I get along with kids easily.	나는 친구들과 쉽게 잘 지내는 편이다.
	I am easy to like.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좋아하는 편이다.
	Other kids want me to be their friend.	다른 애들이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I have more friends than most other kids.	내가 다른 애들보다 친구가 더 많다.
	I am popular with kids of my own age.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다.
Most other kids like me.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2)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 척도는 박성옥, 기현주, 신귀순(2004)가 아동용 성취동기 척도로 개발한 척도의 하위영역 중 “미래지향적 사고” 6항목을 사용하였다.

[표Ⅲ-6] 미래에 대한 기대 최종 문항

분류	항목
미래에 대한 기대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지나간 일보다 미래의 일에 더 관심이 간다.
	나는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자주 상상한다.
	대체로 나는 미래 지향적이다.
	나는 항상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하곤 한다.

2) 요인분석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은 자존감, 사회성(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각 변수들의 척도는 이미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척도가 외국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번역상의 문제나 문화적 격차, 그리고 아동들을 설문 대상으로 하는 본 평가 연구의 성격으로 인해서 개발 시점의 신뢰도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요인분석 결과

① 친구관계 문항 중 5개 항목이 자존감과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친구관계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친구가 많다거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과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나 자존감으로 같이 묶어서 분석하였다.

② 자존감 중 4개 문항, 친구관계 1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제외 문항]

- 자존감 1번 : 나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 자존감 4번 : 나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부정문항)
- 자존감 7번 : 나는 지금 그대로의 내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 자존감 12번 :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별로 잘하지 못한다.(부정문항)
- 친구관계 8번 : 대부분의 다른 애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

자존감 1번, 7번, 12번, 친구관계 8번 문항은 2014년 평가에서도 제외되었던 문항들이라 해당문항이 아이들의 이해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질문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적 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설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거나 부정 문항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추측된다.

[표Ⅲ-7] 요인분석 결과_설문문항표

영역	설문문항	설문번호	요인분석결과
자존감	나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1	삭제
	나는 잘 하는 것이 별로 없다.	4	
	지금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7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별로 잘하지 못한다.	12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10	동일요인 자존감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만큼은 하는 편이다.	15	
	다른 사람들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	
	나는 뛰어난 점이 많은 사람이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뛰어나다.	23	
	나는 무슨일을 할 때 잘 하는 편이다.	25	
친구관계	대부분의 다른 애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	8	삭제
	나는 친구가 많다.	2	동일요인 친구관계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5	
	나는 친구들과 쉽게 잘 지내는 편이다.	11	

영역	설문문항	설문번호	요인분석결과
	다른 친구들이 나를 쉽게 좋아하는 편이다.	13	자존감요인
	다른 애들이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16	
	내가 다른 애들보다 친구가 더 많다.	19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다.	22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24	
미래기대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3	동일요인 미래기대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6	
	나는 지나간 일보다 미래의 일에 더 관심이 간다.	9	
	나는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자주 상상한다.	14	
	대체로 나는 미래 지향적이다.	17	
	나는 항상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하곤 한다.	20	

[표Ⅲ-8] 초기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1	2	3	4	5	6	7
자존감1							
자존감4						.767	
자존감7					.491		.479
자존감10		-.593					
자존감12						.746	
자존감15		-.413					
자존감18		-.779					
자존감21		-.727					
자존감23		-.767					
자존감25		-.651					
친구관계2					.746		
친구관계5					.630		
친구관계8							.833
친구관계11					.672		
친구관계13		-.541					
친구관계16		-.677					
친구관계19		-.662					
친구관계22		-.736					
친구관계24		-.697					
미래기대3			.779				
미래기대6			.836				
미래기대9			.692				
미래기대14			.838				
미래기대17			.685				
미래기대20			.777				

[표Ⅲ-9] 최종 요인분석 결과

구분	성분				
	1	2	3	4	5
자존감10		.652			
자존감15		.454			
자존감18		.824			
자존감21		.772			
자존감23		.832			
자존감25		.713			
친구관계2					.780
친구관계5					.642
친구관계11					.691
친구관계13		.549			
친구관계16		.662			
친구관계19		.647			
친구관계22		.768			
친구관계24		.729			
미래기대1			.741		
미래기대2			.808		
미래기대3			.669		
미래기대4			.816		
미래기대5			.660		
미래기대6			.755		

*추출 방법:프린시펄구성요소분석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를 사용한 오블리민
a.7 반복에서 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3)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Ⅲ-8]과 같다. 위의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 변수들을 구분하였고 대부분의 변수가 높은 Cronbach's α 값($\alpha > 0.7$)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Ⅲ-10]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수 ³	Cronbach's α
자존감	11	.928
친구관계	3	.791
미래에 대한 기대	6	.873

3) 요인분석한 이후 제외된 항목을 뺀 문항수 임.

4) 정규분포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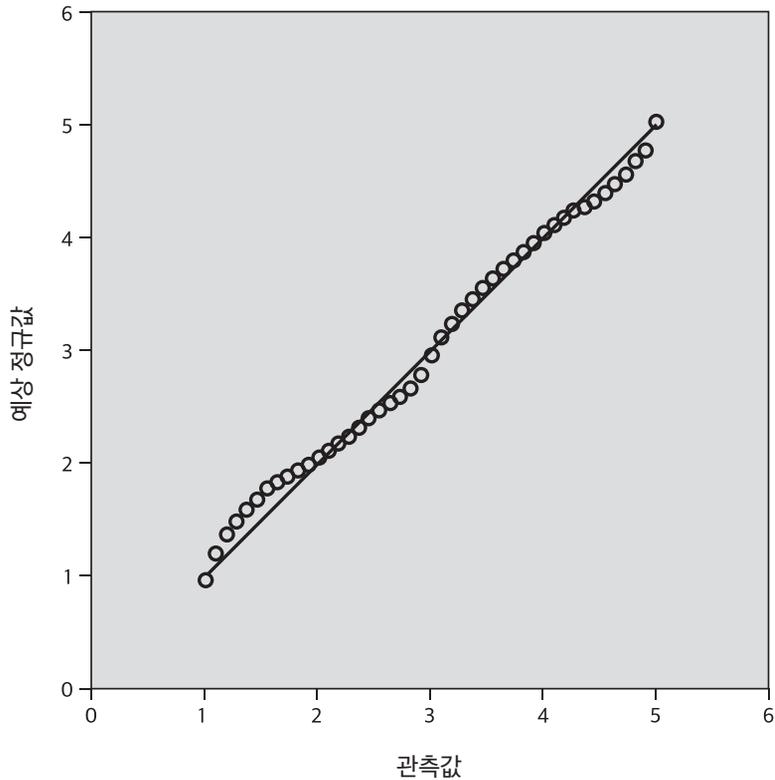
사전, 사후 평가결과 데이터의 정규 분포 여부(Normality Test)를 먼저 확인하였다. 왜도 수치를 확인했을 때 0.011(자존감), -0.451(친구관계), -0.356(미래기대)로 1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나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정규분포 분석을 적용하였다.

[표Ⅲ-11]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기대 기술통계

구분		통계량	표준오차	
자존감	평균	3.3429	.02586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3.2921	.
		상한	3.3937	.
	5% 절삭평균	3.3470	.	
	중위수	3.2727	.	
	분산	.508	.	
	표준편차	.71247	.	
	최소값	1.00	.	
	최대값	5.00	.	
	범위	4.00	.	
	사분위수 범위	.73	.	
	왜도	<u>.011</u>	<u>.089</u>	
	첨도	.609	.177	
친구관계	평균	3.7914	.02935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3.7338	.
		상한	3.8490	.
	5% 절삭평균	3.8277	.	
	중위수	4.0000	.	
	분산	.654	.	
	표준편차	.80853	.	
	최소값	1.00	.	
	최대값	5.00	.	
	범위	4.00	.	
	사분위수 범위	1.00	.	
	왜도	<u>-.451</u>	<u>.089</u>	
	첨도	.019	.177	

구분		통계량	표준오차	
미래기대	평균	3.6904	.02972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3.6320	.
		상한	3.7487	.
	5% 절삭평균	3.7201	.	
	중위수	3.6667	.	
	분산	.671	.	
	표준편차	.81889	.	
	최소값	1.00	.	
	최대값	5.00	.	
	범위	4.00	.	
	사분위수 범위	1.17	.	
	왜도	<u>-0.356</u>	<u>.089</u>	
	첨도	-0.216	.177	

[그림Ⅲ-1] 자존감 정규 Q-Q도표



5) 상관관계 분석

사업성과를 측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변수들 간에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비참여 비교집단까지 모두 참여한 데이터이며, '자존감' 과 '친구관계'가 보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 -12] 변수간 상관관계

구 분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기대
자존감	Pearson 상관계수	1.000	.674**	.538**
	유의확률(양측)	.	.000	.000
	N	1251	1243	1225
친구관계	Pearson 상관계수	.674**	1.000	.415**
	유의확률(양측)	.000	.	.000
	N	1243	1278	1249
미래기대	Pearson 상관계수	.538**	.415**	1.000
	유의확률(양측)	.000	.000	.
	N	1225	1249	1254

** 상관 유의수준이 0.01입니다(양측).

IV. 음악 여부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1. 일반현황

2. 음악하는 집단과 음악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 분석

All
kids
tra.

1. 일반현황

1) 전체 참여아동 수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는 대상 중예(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집단’과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먼저 진행하였다.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은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지원하는 울키즈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며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음악참여집단의 경우 총 407명(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모두 포함)이며, 음악비참여집단은 총 237명이 사전, 사후 설문 모두 참여하여 분석대상이 되었다.

[표IV-1] 울키즈스트라/ 비교집단의 참여아동 수

구분	빈도	퍼센트
음악참여집단 (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407	63.2
음악비참여 비교집단	237	36.8
합계	644	100.0

2) 연령별

사후설문을 진행한 2015년 11월 현재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음악참여집단은 12세~15세(초5~중2)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음악 비참여 집단은 9세~12세(초2~초5)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령대별로 다시 구분하여 보면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의 분포가 가장 많았으나 음악참여집단의 경우 음악비참여집단보다 중학생의 분포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IV-2] 비교집단별 일반현황_나이

나이		비교집단				전체	
		음악참여집단		음악비참여집단			
		n	%	n	%	n	%
초등학생	8	1	0.2	1	0.4	2	0.3
	9	16	4.0	51	21.7	67	10.5
	10	28	6.9	46	19.6	74	11.6
	11	43	10.6	42	17.9	85	13.3
	12	55	13.6	39	16.6	94	14.7
	13	82	20.3	17	7.2	99	15.5
중학생	14	59	14.6	16	6.8	75	11.7
	15	52	12.9	9	3.8	61	9.5
	16	35	8.7	9	3.8	44	6.9
고등학생	17	13	3.2	5	2.1	18	2.8
	18	14	3.5	0	0.0	14	2.2
	19	3	0.7	0	0.0	3	0.5
졸업생	20	3	0.7	0	0.0	3	0.5
전체		404	100.0	235	100.0	639	100.0

[표IV-3] 비교집단별 일반현황_연령대

연령대	음악참여집단		음악비참여집단		전체	
	n	%	n	%	n	%
초등학생	225	55.7	196	83.4	421	65.9
중학생	146	36.1	34	14.5	180	28.2
고등학생	30	7.4	5	2.1	35	5.5
졸업생	3	0.7	0	0.0	3	0.5
전체	404	100.0	235	100.0	639	100.0

울키즈스트라 사업 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에 있어 연령별로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하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의 협조를 구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설문수집이 가능한 모든 아이들에게 설문을 수집하였다. 각 집단이 연령에 있어 차이가 있는 그룹이지만 사전/사후 검

사를 모두 진행함으로써 동질그룹이 아닌 문제를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하였다.

3) 성별

[표Ⅳ-4] 성별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참여집단은 여자가 61.4%로 남자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비참여집단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설문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표Ⅳ-4] 비교집단의 일반현황_성별

성별	음악참여집단		음악비참여집단		전체	
	n	%	n	%	n	%
남자	157	38.6	121	51.1	278	43.2
여자	250	61.4	116	48.9	366	56.8
전체	407	100.0	237	100.0	644	100.0

4) 지역유형

[표Ⅳ-5] 지역유형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참여집단은 도시가 54.1%, 농어촌이 45.9%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음악비참여집단의 경우 도시가 70.5%, 농어촌이 29.5%로 도시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표Ⅳ-5] 비교집단의 일반현황_지역유형

지역유형	음악참여집단		음악비참여집단		전체	
	n	%	n	%	n	%
도시	220	54.1	167	70.5	387	60.1
농어촌	187	45.9	70	29.5	257	39.9
전체	407	100.0	237	100.0	64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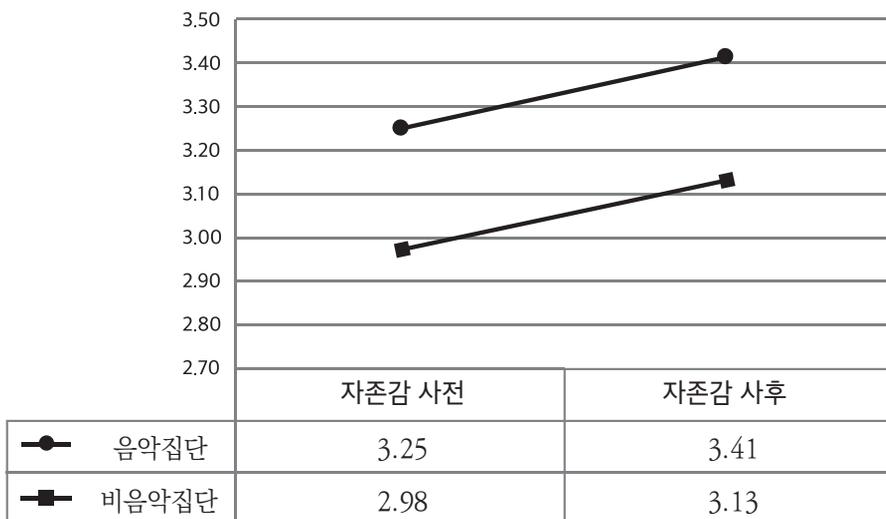
2. 음악하는 집단과 음악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 분석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저소득층)을 가진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을 배운 아동과 음악을 배우지 않은 아동을 비교해본 결과, 음악참여집단의 경우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에 있어서 사후에 사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 값=자존감 0.000, 친구관계 0.001, 미래기대 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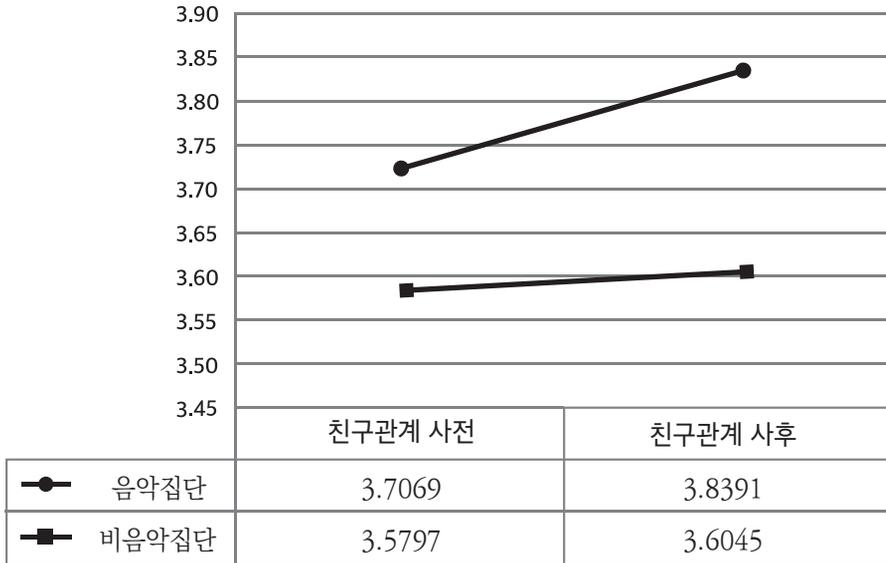
음악비참여집단의 경우는 음악참여집단만큼은 아니지만 자존감에 있어서는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고 있어(p 값=0.003) 음악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사후에 자존감의 향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비참여집단의 경우 친구관계, 미래기대에서 모두 사후가 사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값=친구관계 0.569, 미래기대 0.091)

두 개의 집단이 사전에 동질한 집단이었는지 여부, 사후에 다른 집단이 되었는지 여부를 T-test로 분석하였을 때, 친구관계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질한 집단이었다가 사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나타나 음악의 효과를 통해 친구관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존감과 미래기대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사전과 사후에 모두 동질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타나 음악의 효과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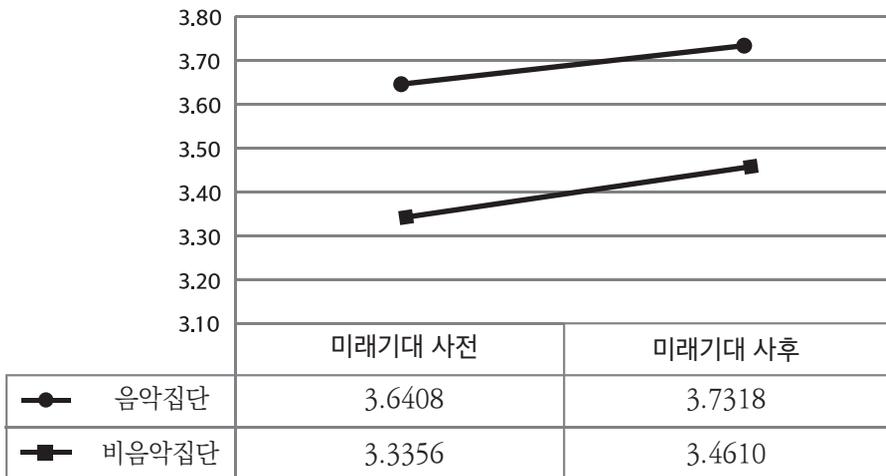
[그림IV-1] 음악참여집단과 음악비참여집단의 자존감 평균비교



[그림Ⅳ-2] 음악참여집단과 음악비참여집단의 친구관계 평균비교



[그림Ⅳ-3] 음악참여집단과 음악비참여집단의 미래기대 평균비교



[표IV-6] 음악참여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T-test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자존감 사전/사후	-.152	.762	.039	-.227	-.076	-3.929	389	<u>.000</u>
대응 2	친구관계 사전/사후	-.133	.831	.041	-.214	-.051	-3.210	404	<u>.001</u>
대응 3	미래기대 사전/사후	-.090	.869	.044	-.176	-.003	-2.045	391	<u>.042</u>

[표IV-7] 음악비참여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T-test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자존감 사전/사후	-.174	.854	.058	-.288	-.06	-3.014	218	<u>.003</u>
대응 2	친구관계 사전/사후	-.038	1.004	.066	-.169	.093	-.57	228	.569
대응 3	미래기대 사전/사후	-.122	1.062	.072	-.263	.02	-1.697	218	.091

[표IV-8] 음악참여집단/음악비참여집단 간의 차이 T-test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df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존감 사전	등분산을 가정함	2.919	.088	4.665	619	.000	.27866	.05974	.16135	.3959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508	412.795	.000	.27866	.06181	.15715	.40017
자존감 사후	등분산을 가정함	1.099	.295	4.420	628	.000	.28171	.06374	.15654	.4068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331	456.151	.000	.28171	.06504	.15389	.40952
친구관계 사전	등분산을 가정함	6.559	.011	1.723	634	.085	.12719	.07384	-.01781	.2721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652	418.937	.099	.12719	.07700	-.02416	.27854
친구관계 사후	등분산을 가정함	10.562	.001	3.355	640	.001	.23456	.06992	.09725	.3718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175	413.662	.002	.23456	.07388	.08933	.37979
미래기대 사전	등분산을 가정함	2.179	.140	4.129	618	.000	.30517	.07390	.16004	.45030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4.001	413.659	.000	.30517	.07628	.15523	.45512
미래기대 사후	등분산을 가정함	7.443	.007	3.965	632	.000	.27084	.06831	.13669	.4049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841	443.985	.000	.27084	.07051	.13227	.40941

V. 음악 프로그램별(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성과 평가 결과

1. 일반현황
2. 음악 프로그램별 비교 분석

All
kids
tra.

1. 일반현황

1) 참여아동 수

본 장에서는 올키즈스트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중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성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음악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관악단의 경우 40명 이상 규모로 8개 이상의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합주가 상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미니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규모로 4개 이상의 악기로 구성되어 역시 합주가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악기레슨의 경우에는 10명 내외의 아동이 1,2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주는 없고 있더라도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합주활동만 진행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관악단이 164명, 미니오케스트라가 109명, 악기레슨이 134명으로 아래표와 같다.

[표V-1] 음악 프로그램별 참여아동 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관악단	164	40.3	40.3	40.3
미니오케스트라	109	26.8	26.8	67.1
악기레슨	134	32.9	32.9	100.0
합계	407	100.0	100.0	

2)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보았을 때, 관악단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미니오케스트라와 악기레슨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 음악 프로그램별 일반현황_나이

나이		비교집단						전체	
		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n	%	n	%	n	%	n	%
초등학생	8.00	0	0.0	0	0.0	1	0.8	1	0.2
	9.00	1	0.6	6	5.6	9	6.8	16	4.0
	10.00	5	3.0	7	6.5	16	12.0	28	6.9
	11.00	16	9.8	11	10.3	16	12.0	43	10.6
	12.00	25	15.2	17	15.9	13	9.8	55	13.6
	13.00	26	15.9	28	26.2	28	21.1	82	20.3
중학생	14.00	23	14.0	17	15.9	19	14.3	59	14.6
	15.00	30	18.3	10	9.3	12	9.0	52	12.9
	16.00	20	12.2	3	2.8	12	9.0	35	8.7
고등학생	17.00	6	3.7	3	2.8	4	3.0	13	3.2
	18.00	8	4.9	3	2.8	3	2.3	14	3.5
	19.00	3	1.8	0	0.0	0	0.0	3	0.7
졸업생	20.00	1	0.6	2	1.9	0	0.0	3	0.7
전체		164	100	107	100	133	100	404	100

[표 V-3] 음악 프로그램별 일반현황_연령대

연령대	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전체	
	n	%	n	%	n	%	n	%
초등학생	73	44.5	69	64.5	83	62.4	225	55.7
중학생	73	44.5	30	28.0	43	32.3	146	36.1
고등학생	17	10.4	6	5.6	7	5.3	30	7.4
졸업생	1	0.6	2	1.9	0	0.0	3	0.7
전체	164	100	107	100	133	100	404	100

3) 성별

성별의 경우에는 세 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관악단이 남자아동의 비율이 42.1%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4] 음악 프로그램별 일반현황_성별

성별	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전체	
	n	%	n	%	n	%	n	%
남자	69	42.1	36	33.0	52	38.8	157	38.6
여자	95	57.9	73	67.0	82	61.2	250	61.4
전체	164	100.0	109	100.0	134	100.0	407	100.0

4) 지역유형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관악단은 대부분 중소도시 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아무래도 규모있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으로 배치되기 어려운 이유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미니오케스트라와 악기레슨의 경우에는 농어촌이 60%이상으로 도시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V-5] 음악 프로그램별 일반현황_지역유형

지역유형	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전체	
	n	%	n	%	n	%	n	%
대.중소도시	145	88.4	37	33.9	38	28.4	220	54.1
농어촌	19	11.6	72	66.1	96	71.6	187	45.9
전체	164	100.0	109	100.0	134	100.0	407	100.0

5) 사업참여기간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을 살펴보면, 세 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1년~3년 사이의 아동이 가장 많으며 악기레슨의 경우가 1~2년미만의 아동이 72.5%로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V-6] 음악 프로그램별 일반현황_사업참여 기간별

참여기간	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전체	
	n	%	n	%	n	%	n	%
1년미만	23	15.3	12	12.6	6	5.5	41	11.6
1~2년	69	46.0	38	40.0	79	72.5	186	52.5
2~3년	47	31.3	35	36.8	12	11.0	94	26.6
3~4년	9	6.0	6	6.3	7	6.4	22	6.2
4~5년	2	1.3	1	1.1	2	1.8	5	1.4
5년이상	0	0.0	3	3.2	3	2.8	6	1.7
전체	150	100.0	95	100.0	109	100.0	354	100.0

6) 악기별

악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관악단의 경우는 관악기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리넷이 가장 많으며, 미니오케스트라의 경우 바이올린이 46.7%로 가장 많은 악기를 차지하고 있다. 악기레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V-기] 음악 프로그램별 일반현황_악기

악기	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전체	
	n	%	n	%	n	%	n	%
클라리넷	34	20.7	14	13.1	14	11.2	62	15.7
플룻	24	14.6	24	22.4	30	24.0	78	19.7
색소폰	19	11.6	0	0.0	0	0.0	19	4.8
트럼펫	30	18.3	0	0.0	7	5.6	37	9.3
트롬본	16	9.8	2	1.9	1	0.8	19	4.8
튜바	4	2.4	0	0.0	0	0.0	4	1.0
뉴포늄	4	2.4	0	0.0	0	0.0	4	1.0
호른	15	9.1	0	0.0	1	0.8	16	4.0
타악기	18	11.0	1	0.9	4	3.2	23	5.8
바이올린	0	0.0	50	46.7	50	40.0	100	25.3
첼로	0	0.0	16	15.0	18	14.4	34	8.6
전체	164	100.0	107	100.0	125	100.0	396	100.0

2. 음악 프로그램별 비교 분석

1) 비교집단간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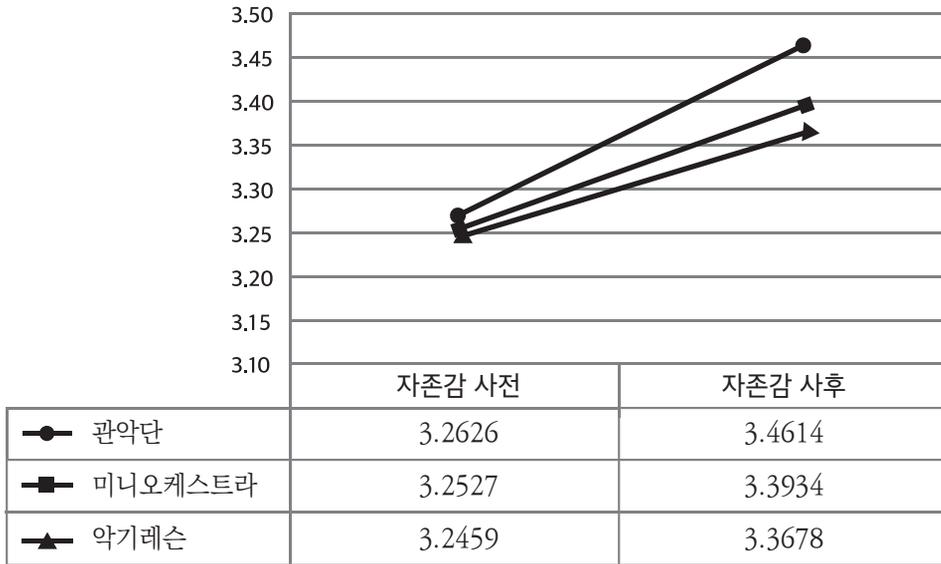
음악을 하는 아동들 중에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자존감의 경우에는 관악단만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p 값=관악단 0.001, 미니오케스트라 0.056, 악기레슨 0.120) 따라서 자존감의 경우에는 규모가 좀 더 크고 합주가 진행되는 관악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향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각 비교집단이 자존감에 있어 동질한 집단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는 사전에도 동질집단, 사후에도 동질집단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경우에는 미니오케스트라가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p=0.001$), 다른집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룹간에 동질집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전에 동질집단이 아니었는데($p=0.006$) 이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니오케스트라만 친구관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사후에 미니오케스트라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면서 동질집단으로($p=0.480$) 나타나고 있다. 관악단과 악기레슨의 경우에는 사전 친구관계 점수가 3.82점, 3.73점으로 5점 만점에 이미 4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어 5점 척도로 그 상승을 잡아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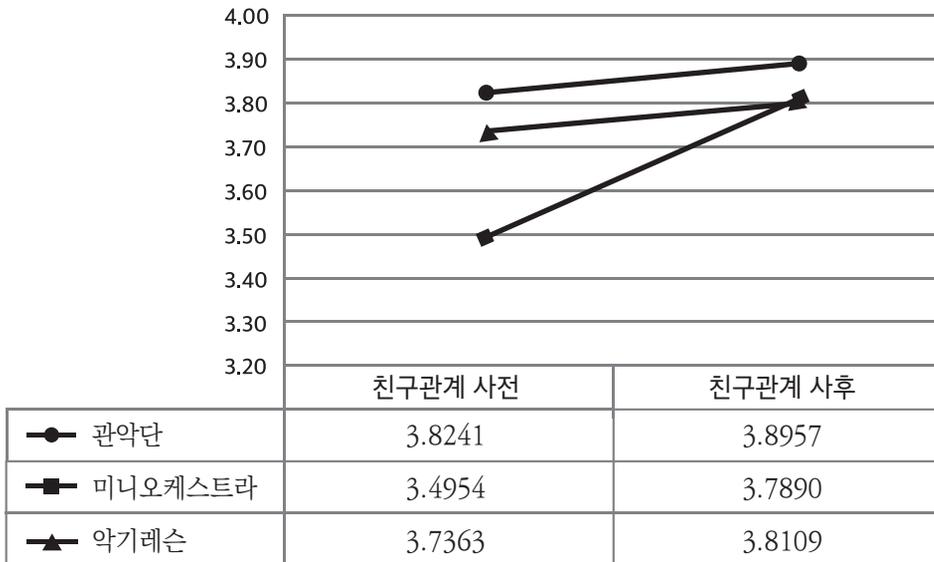
미래기대를 살펴보면, 수치상으로는 관악단보다 미니오케스트라와 악기레슨이 사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며 집단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프로그램별로는 관악단은 자존감이, 미니오케스트라는 친구관계가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그룹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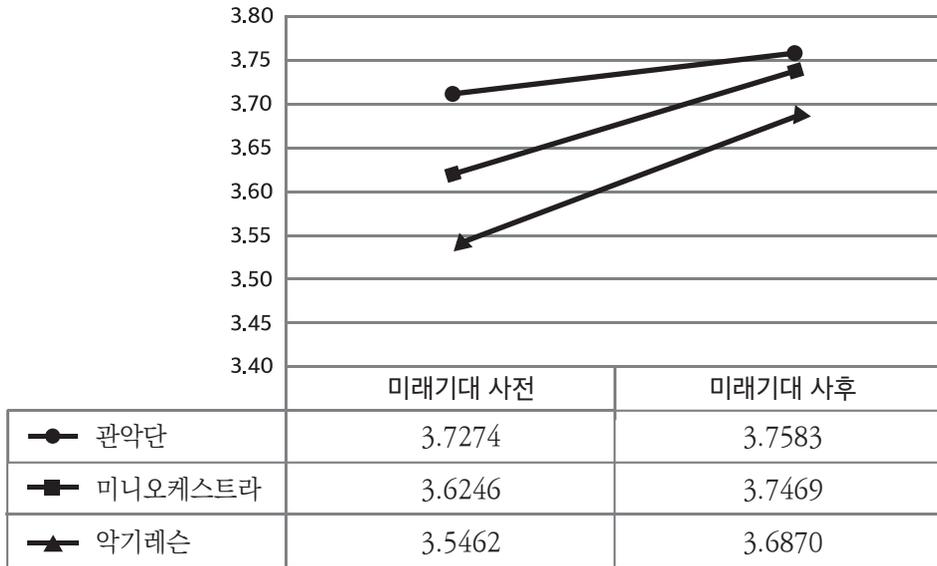
[그림V-1] 비교집단별 자존감 평균비교



[그림V-2] 비교집단별 친구관계 평균비교



[그림V-3] 비교집단별 미래기대 평균비교



[표V-8] 관악단 사전/사후 차이 T-test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자존감 사전/사후	-.18009	.64229	.05110	-.28102	-.07916	-3.524	157	.001
대응 2	친구관계 사전/사후	-.07202	.64104	.05036	-.17148	.02744	-1.43	161	.155
대응 3	미래기대 사전/사후	-.01793	.83314	.06628	-.14885	.11299	-.271	157	.787

[표 V-9] 미니오케스트라 사전/사후 차이 T-test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자존감 사전/사후	-.13594	.72731	.07031	-.27534	.00346	-1.933	106	.056
대응 2	친구관계 사전/사후	-.29358	.93042	.08912	-.47023	-.11693	-3.294	108	<u>.001</u>
대응 3	미래기대 사전/사후	-.12773	.84321	.08152	-.28934	.03389	-1.567	106	.120

[표 V-10] 악기레슨 사전/사후 차이 T-test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자존감 사전/사후	-.12873	.91822	.08213	-.29128	.03383	-1.567	124	.120
대응 2	친구관계 사전/사후	-.07463	.93090	.08042	-.23369	.08444	-.928	133	.355
대응 3	미래기대 사전/사후	-.14698	.93166	.08267	-.31059	.01662	-1.778	126	.078

[표 V-11] 비교집단간의(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차이 ANOVA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자존감 사전	집단-간	.020	2	.010	.022	.979
	집단-내	184.641	396	.466	.	.
	합계	184.661	398	.	.	.
자존감 사후	집단-간	.681	2	.340	.605	.547
	집단-내	221.673	394	.563	.	.
	합계	222.353	396	.	.	.
친구관계 사전	집단-간	7.231	2	3.616	5.204	<u>.006</u>
	집단-내	280.000	403	.695	.	.
	합계	287.232	405	.	.	.
친구관계 사후	집단-간	.902	2	.451	.736	.480
	집단-내	247.029	403	.613	.	.
	합계	247.931	405	.	.	.
미래기대 사전	집단-간	2.407	2	1.203	1.691	.186
	집단-내	281.715	396	.711	.	.
	합계	284.121	398	.	.	.
미래기대 사후	집단-간	.400	2	.200	.318	.727
	집단-내	248.684	396	.628	.	.
	합계	249.084	398	.	.	.

VI. 올키즈스트라 사업내부 평가 결과

1. 지역관악단별 비교분석
2. 미니오케스트라별 비교분석
3. 악기별 비교분석
4. 참여기간별 비교분석
5. 연습시간별 비교분석
6. 경제상황별 비교분석
7. 성적별 비교분석
8. 연령별 비교분석

All
kids
tra.

1. 지역관악단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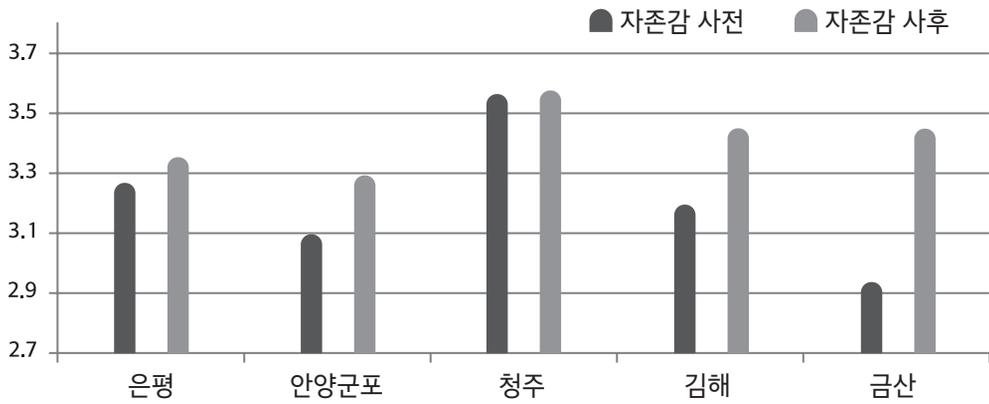
올키즈스트라 성과 평가 결과를 지역관악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존감·친구관계·미래 기대에 있어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곳은 김해, 금산관악단과 안양군포 관악단으로 김해, 금산관악단은 자존감에 있어, 안양군포 관악단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사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사전 점수가 타 관악단에 비해 현저히 낮아 낮게 출발한 곳은 향상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이미 사전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곳은 5점 척도로 그 향상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한다.

[표VI-1] 관악단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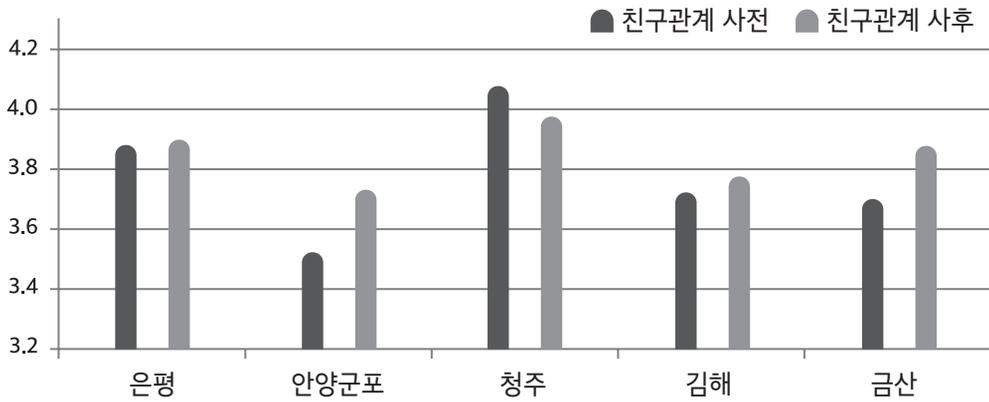
관악단	명수 (n) ⁴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은평	22	3.27	3.35	0.567	3.88	3.92	0.747	3.91	3.75	0.226
안양군포	34	3.09	3.28	0.090	3.53	3.74	<u>0.040</u>	3.51	3.46	0.694
청주	41	3.56	3.57	0.903	4.06	3.96	0.291	3.83	3.78	0.747
김해	28	3.19	3.44	<u>0.015</u>	3.73	3.78	0.654	3.55	3.69	0.376
금산	18	2.93	3.44	<u>0.021</u>	3.70	3.87	0.387	3.73	3.96	0.371

4) 문항마다 응답자 수가 1,2명씩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존감 사전문항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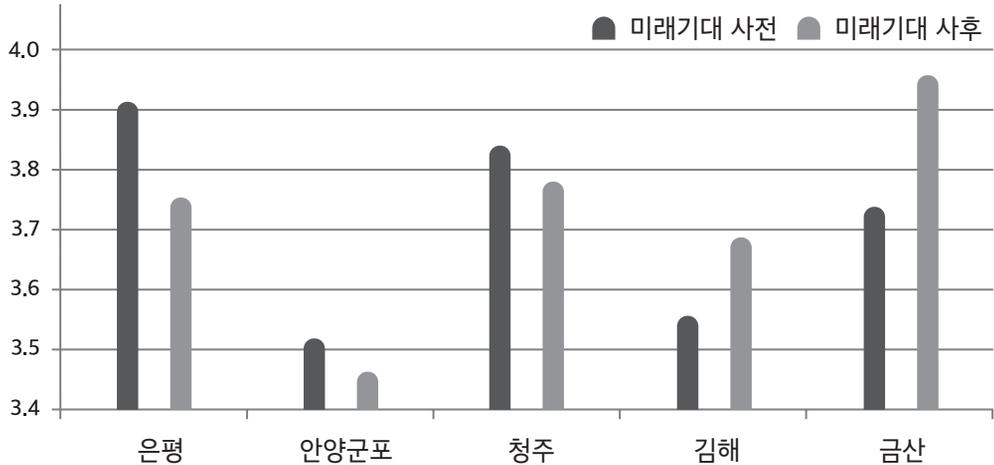
[그림VI-1] 관악단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2] 관악단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3] 관악단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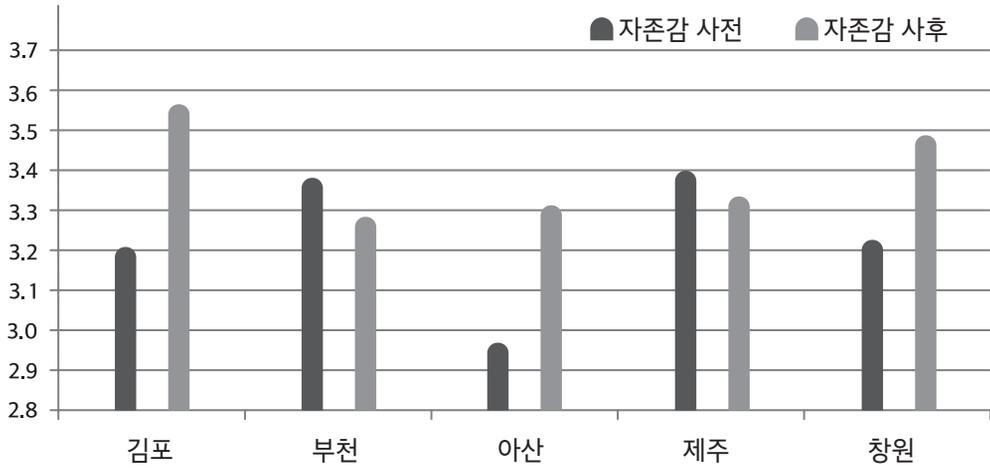
2. 미니오케스트라별 비교분석

미니오케스트라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자존감에 있어서는 김포가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아산과 창원도 사후에 사전에 비해 향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친구관계의 경우 부천과 아산이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아산의 경우 사전에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친구관계를 보였으나 사후에 타 지역과 유사한 정도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경우 역시 아산 지역에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친구관계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가 이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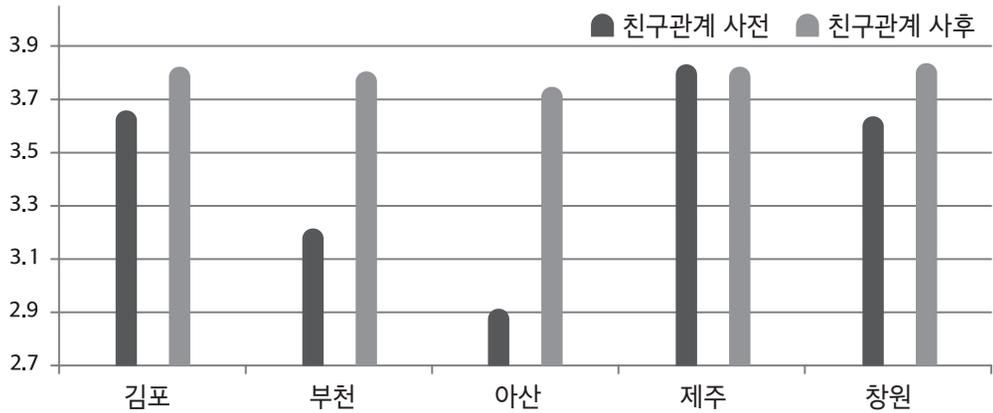
[표VI-2] 미니오케스트라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미니오케스트라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관계 사전	친구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기대 사전	미래기대 사후	유의 확률
김포	20	3.21	3.57	<u>0.020</u>	3.68	3.81	0.487	3.64	3.74	0.443
부천	18	3.38	3.28	0.543	3.21	3.78	<u>0.007</u>	3.50	3.43	0.651
아산	19	2.96	3.31	0.147	2.91	3.73	<u>0.007</u>	3.00	3.76	<u>0.004</u>
제주	31	3.40	3.33	0.450	3.81	3.78	0.833	3.97	3.81	0.355
창원	17	3.22	3.49	0.060	3.66	3.83	0.319	3.77	3.98	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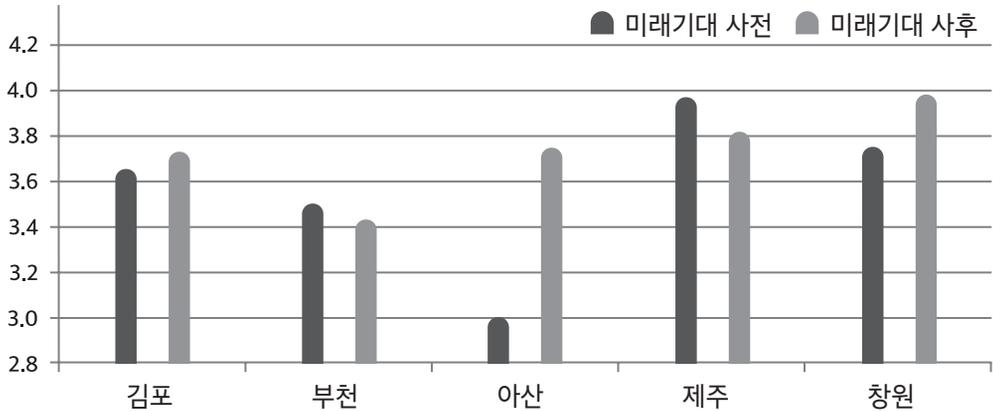
[그림VI-4] 미니오케스트라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5] 미니오케스트라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6] 미니오케스트라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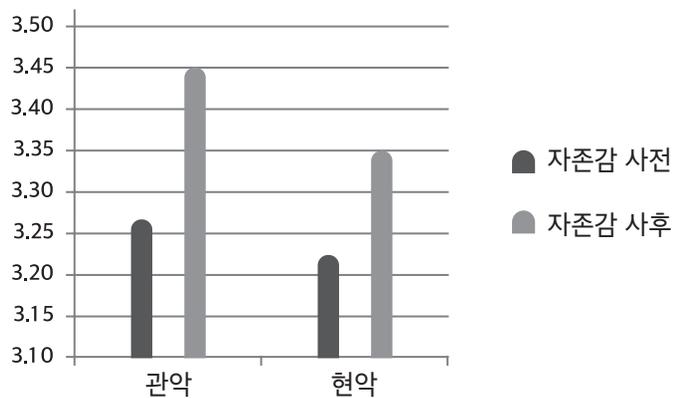
3. 악기별 비교 분석

참여아동의 연주하는 악기를 관악기와 현악기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자존감의 경우 관악기의 경우에만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현악기 보다 관악기의 경우에 자존감의 향상이 더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의 경우에는 관악기와 현악기 모두 사후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는 유의미한 향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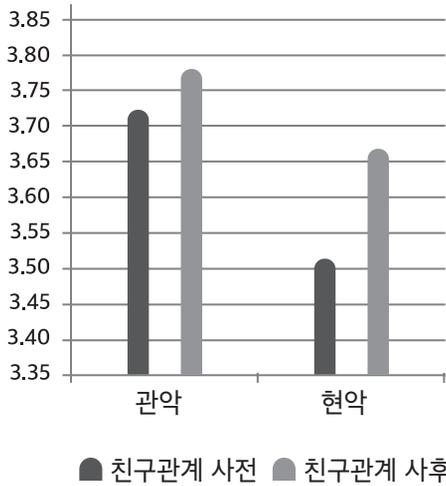
[표VI-3] 악기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악기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관악	228	3.26	3.45	0.000	3.77	3.89	0.017	3.72	3.78	0.225
현악	129	3.22	3.35	0.063	3.54	3.75	0.007	3.51	3.66	0.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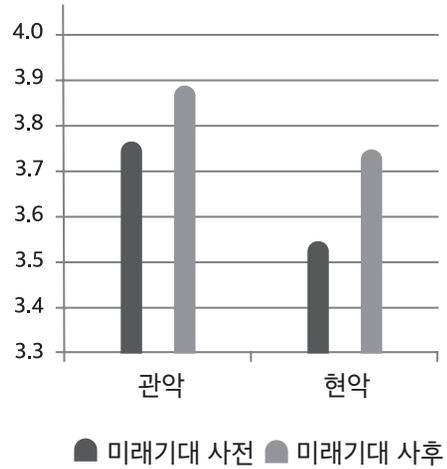
[그림VI-7] 악기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8] 악기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9] 악기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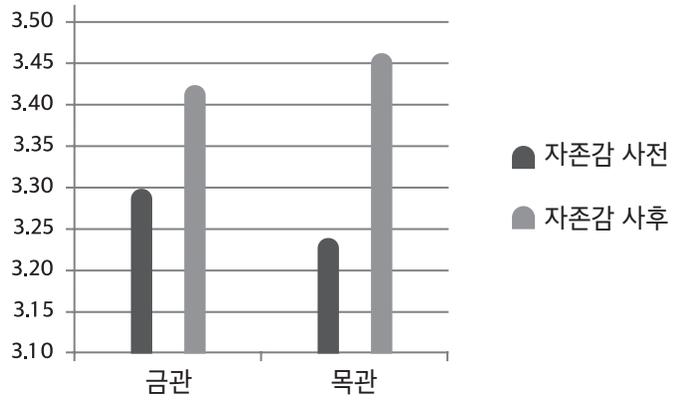


관악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목관(클라리넷, 플룻, 색소폰)과 금관(트럼펫, 트롬본, 튜바, 호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관악기보다 목관악기의 향상이 더욱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존감과 친구관계에 있어 목관만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수치적으로는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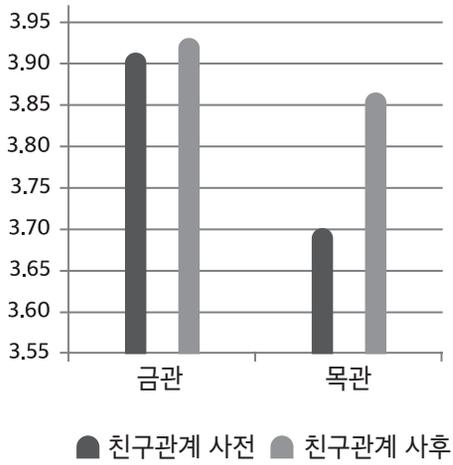
[표VI-4] 관악기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관악기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금관	77	3.30	3.42	0.120	3.91	3.93	0.743	3.76	3.86	0.227
목관	153	3.24	3.46	<u>0.000</u>	3.70	3.86	<u>0.009</u>	3.69	3.75	0.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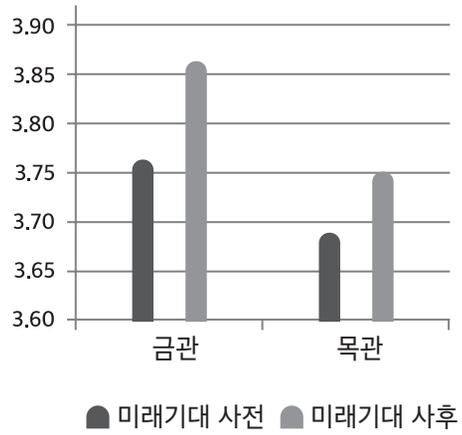
[그림VI-10] 관악기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11] 관악기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12] 관악기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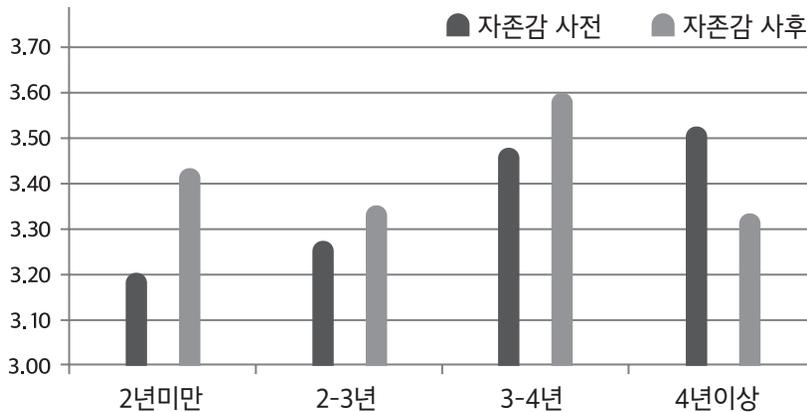
4. 참여기간별 비교 분석

사업에 참여한 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자존감과 친구관계의 경우 2년 미만의 아동들이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된 아동들의 경우 이미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향상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경우 2년 이상의 아동에게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고 있어 자존감과 친구관계가 좀 더 사업 초기에 변화를 보이는 변수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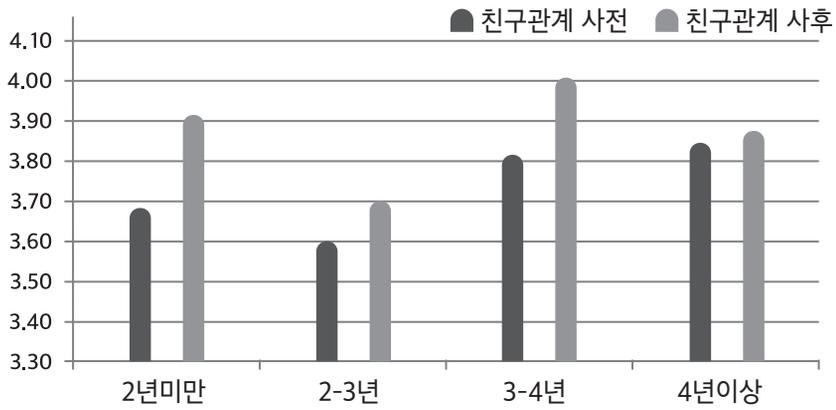
[표VI-5] 참여기간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참여기간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2년미만	217	3.20	3.43	<u>0.000</u>	3.69	3.91	<u>0.000</u>	3.67	3.76	0.142
2~3년	89	3.27	3.35	0.266	3.60	3.70	0.254	3.55	3.75	<u>0.047</u>
3~4년	20	3.48	3.60	0.376	3.81	4.01	0.238	3.60	3.59	0.945
4년이상	11	3.52	3.33	0.240	3.84	3.87	0.890	3.71	3.81	0.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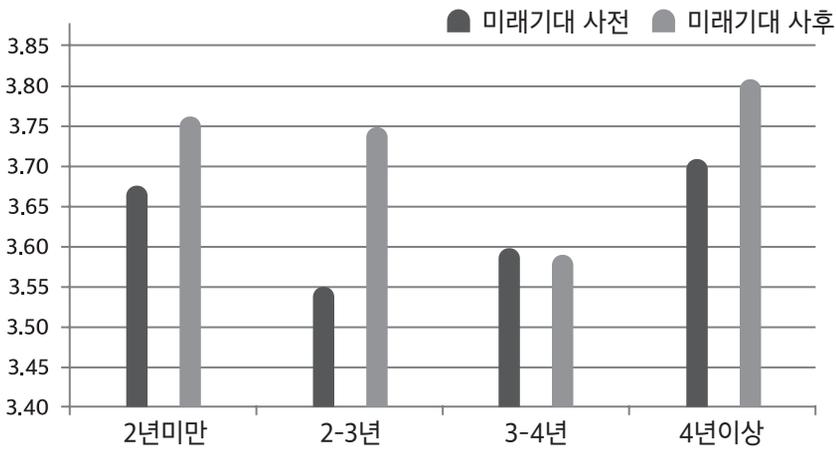
[그림VI-13] 참여기간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14] 참여기간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15] 참여기간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5. 연습시간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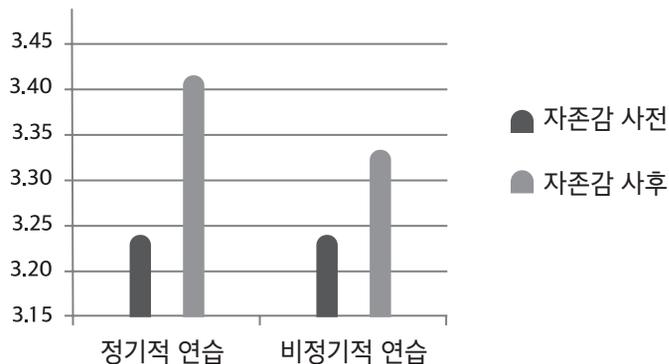
참여아동의 연습시간별로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분석해 보았다. 연습 시간을 매일 연습, 주1~3회 연습, 레슨받기 전후 연습으로 표시한 경우를 '정기적 연습'으로 구분하였고 비정기적으로 연습, 연습없음을 '비정기적 연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 모두에 있어 정기적인 연습을 하는 그룹만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기적인 연습 여부가 아이들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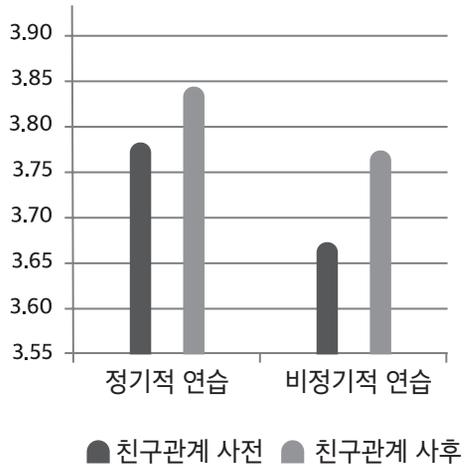
[표VI-6] 연습시간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연습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정기적 연습	323	3.24	3.41	<u>0.000</u>	3.70	3.86	<u>0.000</u>	3.64	3.75	<u>0.026</u>
비정기적 연습	57	3.24	3.33	0.373	3.67	3.67	0.955	3.67	3.61	0.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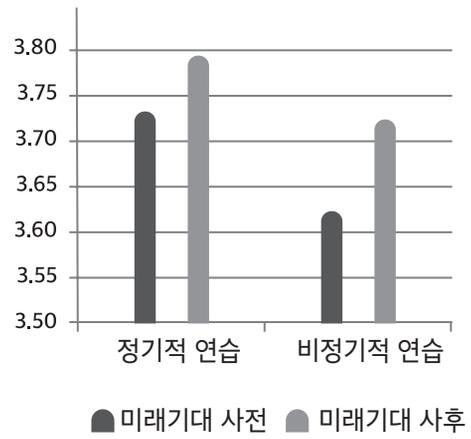
[그림VI-16] 연습시간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 VI-17] 연습시간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 VI-18] 연습시간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6. 경제상황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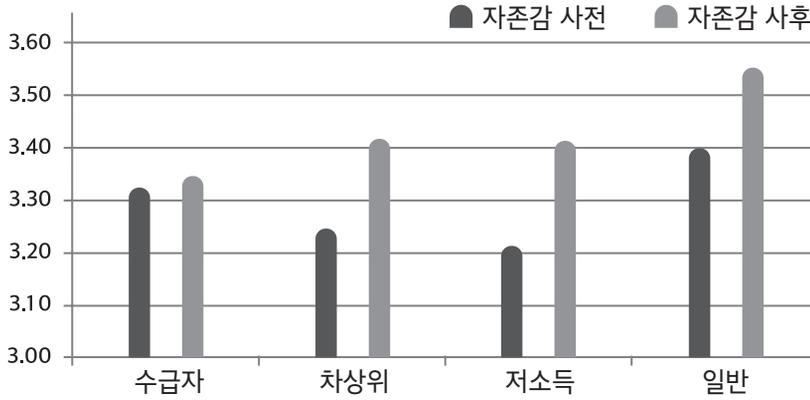
참여아동의 경제상황에 따라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존감에 있어 차상위와 저소득가정 참여아동이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냈다. 이는 2013-14년도 평가 때 수급자가정 아이들이 가장 큰 향상을 나타낸 것과 다른 결과로 사전 점수를 살펴보면, 수급가정 참여아동이 가장 높은 사전 점수를 보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수급가정 아동의 경우 사전에 이미 높은 자존감으로 출발하여 사후 점수차이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지, 일반가정 아동의 자존감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사후 자존감 점수는 절대적 점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경우, 저소득과 일반가정 참여아동이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친구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치로도 일반가정 아동의 친구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후에 사전에 비해서 향상되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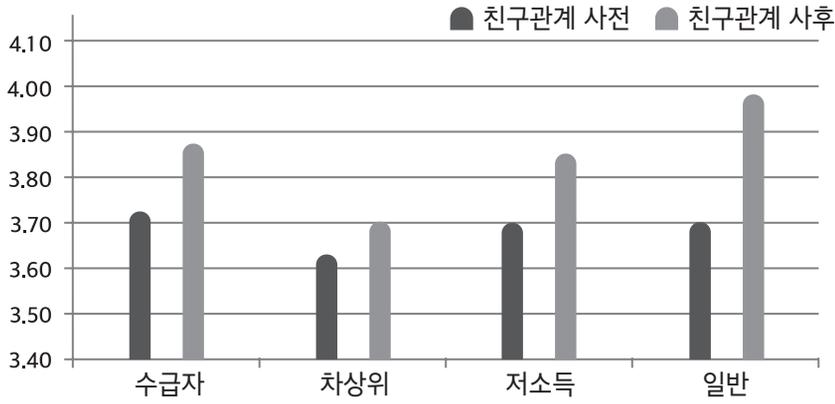
[표VI-7] 경제상황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경제상황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수급자	61	3.32	3.39	0.515	3.72	3.87	0.211	3.63	3.81	0.097
차상위	61	3.24	3.42	<u>0.022</u>	3.63	3.70	0.429	3.59	3.78	0.053
저소득	189	3.21	3.41	<u>0.001</u>	3.70	3.85	<u>0.012</u>	3.63	3.68	0.527
일반	32	3.40	3.55	0.188	3.70	3.98	<u>0.024</u>	3.83	3.92	0.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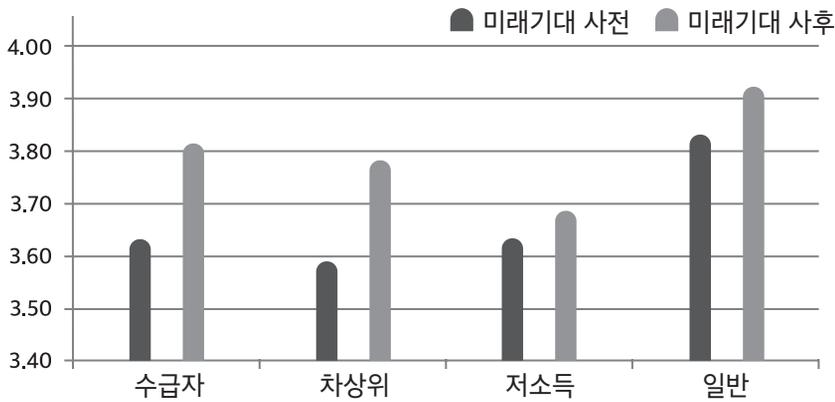
[그림VI-19] 경제상황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20] 경제상황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21] 경제상황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7. 성적별 비교분석

참여아동들이 본인의 학교 성적을 상위 0%(1등), 25%, 50%(중간), 75%, 100%(꼴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0%, 25% 표시한 아동을 상위(134명), 50% 표시한 아동을 중위(161명), 70%, 100% 표시한 아동을 하위(69명)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성적 상위권의 참여아동들이 사전, 사후 모두에서 높은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성적 하위권 아이들은 사후에 사전에 비해 자존감이나 친구관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친구관계의 하락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자존감의 경우는 성적 상위권, 중위권 친구들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절대적인 점수로도 사후에 성적 상위권의 아동이 가장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적은 아동에게 다방면의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적이 상위권인 아동들이 기본적인 자존감이 높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도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사업내에서 성적 하위권인 아이들에 대한 지도와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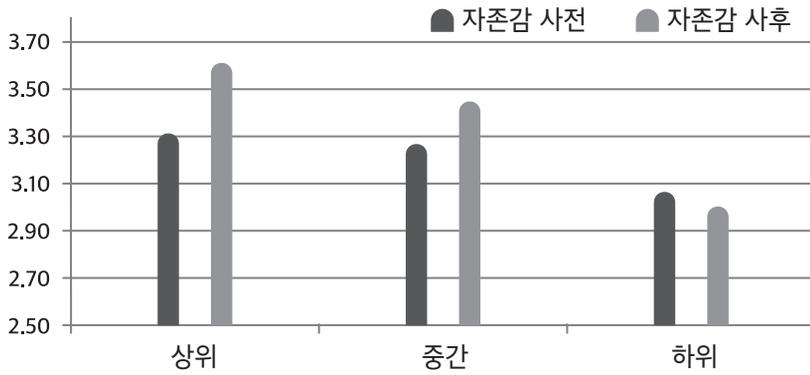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자존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위권과 중위권 참여 아동들이 사후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하위권 참여아동은 친구관계가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본인 스스로 성적이 안좋다고 생각한 친구들의 친구관계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나빠졌다는 결과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모두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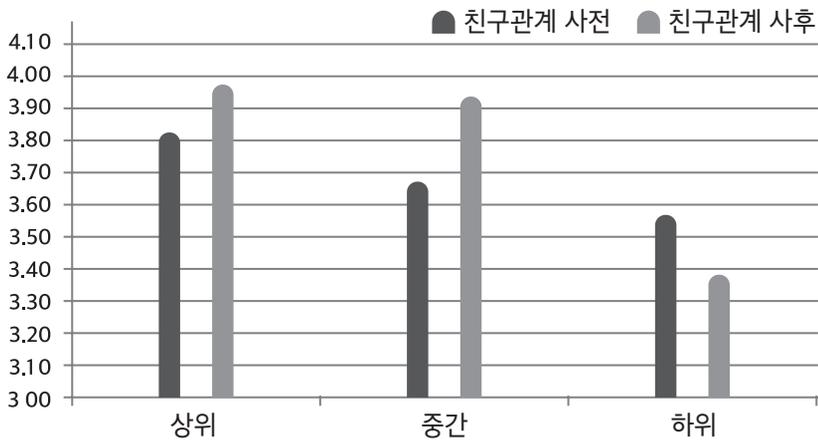
[표VI-8] 성적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성적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상위	134	3.31	3.59	<u>0.000</u>	3.82	3.97	<u>0.038</u>	3.76	3.88	0.124
중간	161	3.28	3.44	<u>0.008</u>	3.67	3.93	<u>0.000</u>	3.70	3.73	0.623
하위	69	3.08	2.099	0.373	3.57	3.38	0.041*	3.38	3.42	0.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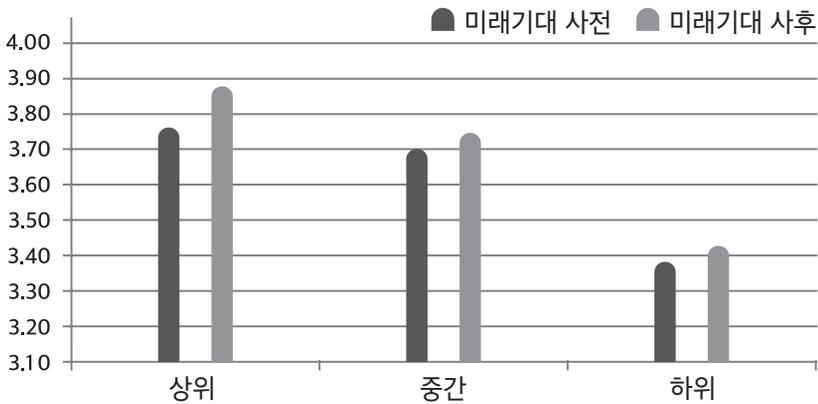
[그림VI-22] 성적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23] 성적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24] 성적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성적의 경우, 성적에 따른 그룹 구분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전에 동질한 그룹이었는지 여부, 사후에 동질한 그룹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자존감의 경우 사전에는 성적이 상위/중위/하위 그룹이 동질한 그룹($p=0.079$)이었다가 사후에는 유의미하게 차이 있는 그룹($p=0.000$)으로 나타난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사전에는 동질한 그룹안에 있으나 사후에는 성적 하위 그룹은 다소 하락하였으며 성적 중위 이상의 그룹만 자존감이 향상되면서 유의미하게 다른 그룹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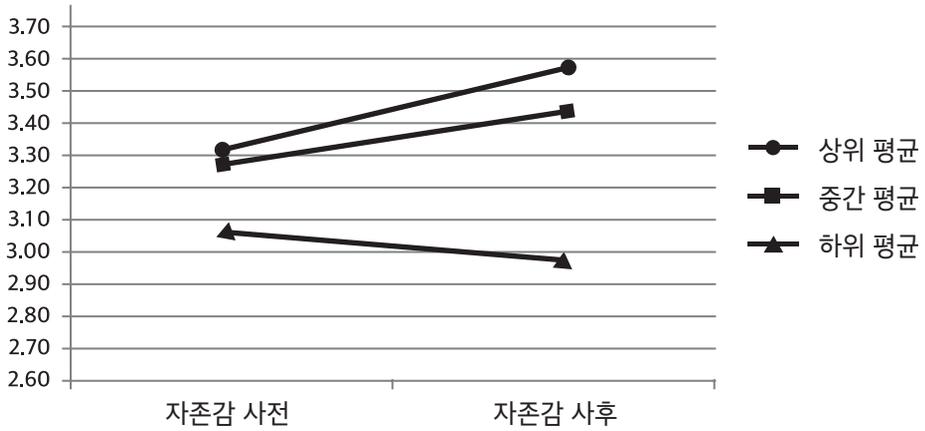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사전에는 동질한 그룹이었으나($p=0.117$)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는 유의미하게 차이 있는 그룹($p=0.000$)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역시 성적 하위 그룹만 떨어지고 중간 이상 그룹은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유의미하게 다른 그룹으로 성적 하위 그룹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른 그룹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후에도 다른 그룹으로 나타나 음악을 통한 효과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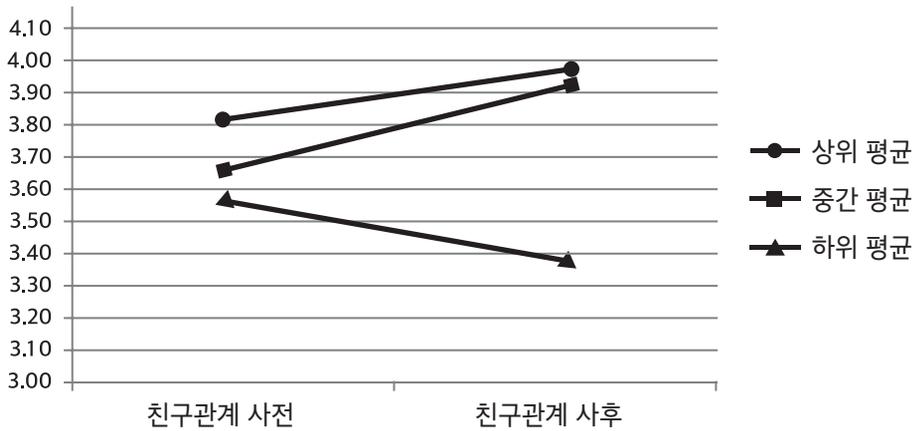
[표VI-9] 성적별 그룹간 차이(ANOVA)

구분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자존감 사전	집단-간	2.395	2	1.198	2.555	.079
	집단-내	173.400	370	.469		
	합계	175.795	372			
자존감 사후	집단-간	16.393	2	8.196	15.850	.000
	집단-내	189.789	367	.517		
	합계	206.182	369			
친구관계 사전	집단-간	3.008	2	1.504	2.154	.117
	집단-내	262.517	376	.698		
	합계	265.525	378			
친구관계 사후	집단-간	17.526	2	8.763	15.590	.000
	집단-내	211.346	376	.562		
	합계	228.872	378			
미래기대 사전	집단-간	7.825	2	3.913	5.565	.004
	집단-내	260.145	370	.703		
	합계	267.970	372			
미래기대 사후	집단-간	9.428	2	4.714	7.705	.001
	집단-내	225.758	369	.612		
	합계	235.186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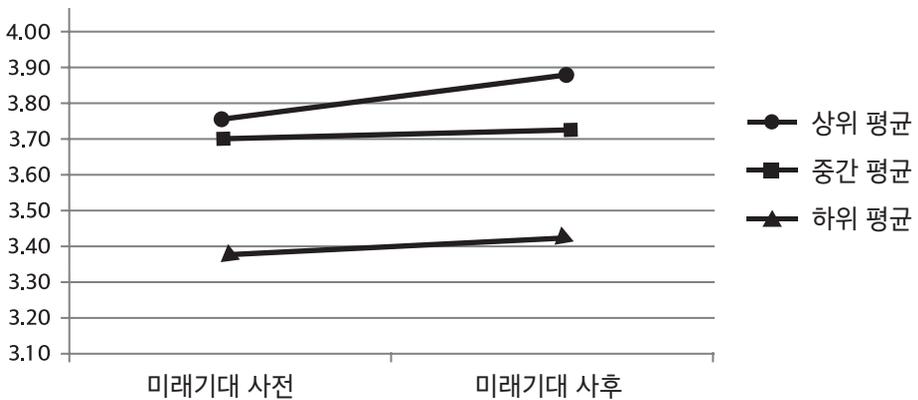
[그림VI-25] 성적별 자존감 사전/사후 평균비교



[그림VI-26] 성적별 친구관계 사전/사후 평균비교



[그림VI-27] 성적별 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비교



8. 연령별 비교분석

연령별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1~3학년을 저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을 고학년 중·고등 학생을 모두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변화와 성장이 보였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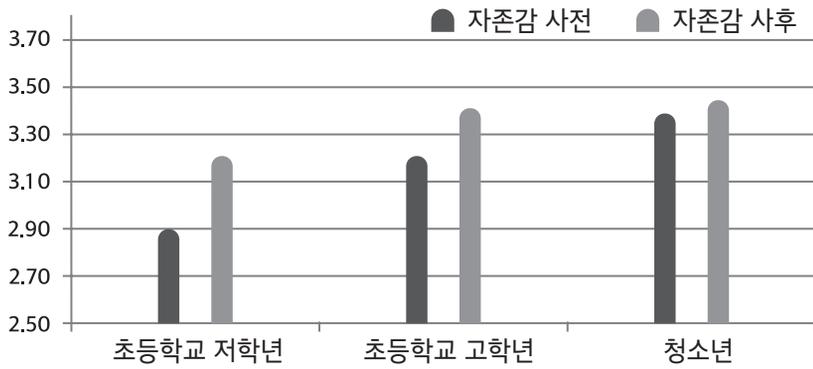
자존감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이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청소년의 경우 사전에 이미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 5점 척도로 향상을 잡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경우 대부분에서 크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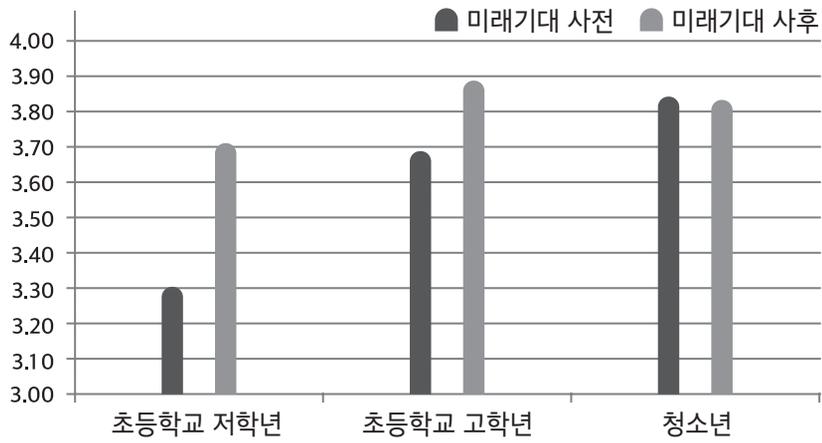
[표 VI-10] 연령별 자존감·친구관계·미래기대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결과(P값)

연령대	명수 (n)	자존감 사전	자존감 사후	유의 확률	친구 관계 사전	친구 관계 사후	유의 확률	미래 기대 사전	미래 기대 사후	유의 확률
초등학교 저학년	43	2.90	3.22	0.058	3.30	3.71	<u>0.014</u>	3.15	3.59	<u>0.009</u>
초등학교 고학년	176	3.21	3.42	<u>0.000</u>	3.69	3.89	<u>0.002</u>	3.65	3.71	0.400
청소년	176	3.38	3.45	0.209	3.83	3.82	0.916	3.76	3.79	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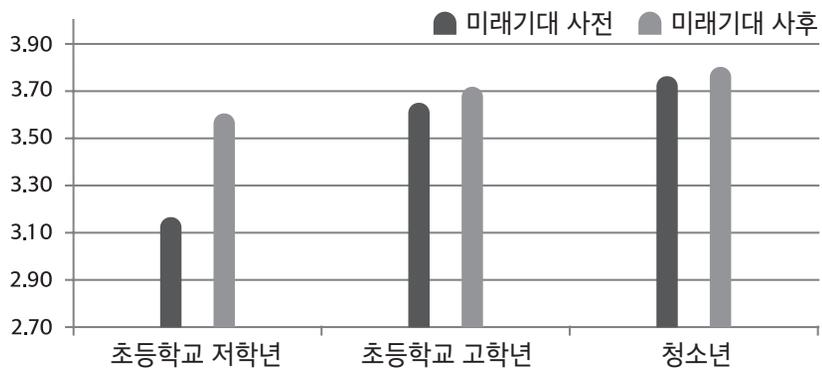
[그림VI-28] 연령별 자존감 평균차이



[그림VI-29] 연령별 친구관계 평균차이



[그림VI-30] 연령별 미래기대 평균차이



Ⅶ. 음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All
kids
tra.

음악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지능력검사(아동용 웨슬러 검사 WISC-III)를 진행하였다. 검사대상은 악기를 처음 접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올키즈스트라 사업 이전에 악기를 배운 아동 제외) 2013-14년에 대부분 악기를 처음 접하는 김해관악단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사전/사후에 검사를 진행한 29명과 2014-15년에 각 관악단별로 악기를 처음 접하는 아동만 선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총 26명이 진행하여 전체 5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차는 사전검사가 2013년 4월 18일~27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후검사는 15개월 후인 2014년 7월 18일~19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2차 검사는 2014년 12월 1일~9일에 진행되었으며 사후검사는 2015년 11월 14일~12월 21일에 진행되었다.

검사장소는 사전과 사후과 모두 동일하게 아동들이 모이는 지역아동센터에 검사자가 방문하여 독립공간에서 1:1로 진행하였다. 아동별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검사는 임상 심리전문가가 진행하였다.

지능검사를 진행한 총 55명 아동을 관악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김해 관악단 아동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산, 상위관악단 순으로 나타난다. 성별의 경우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9세~16세까지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11세, 12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Ⅶ-1] 음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참여아동 수

관악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은평관악단	4	7.3	7.3	7.3
청주관악단	5	9.1	9.1	16.4
김해관악단	29	52.7	52.7	69.1
금산관악단	10	18.2	18.2	87.3
상위관악단 꿈나무단원	7	12.7	12.7	100.0
합계	55	100.0	100.0	

[표Ⅶ-2] 음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일반현황_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남자	28	50.9	50.9	50.9
여자	27	49.1	49.1	100.0
합계	5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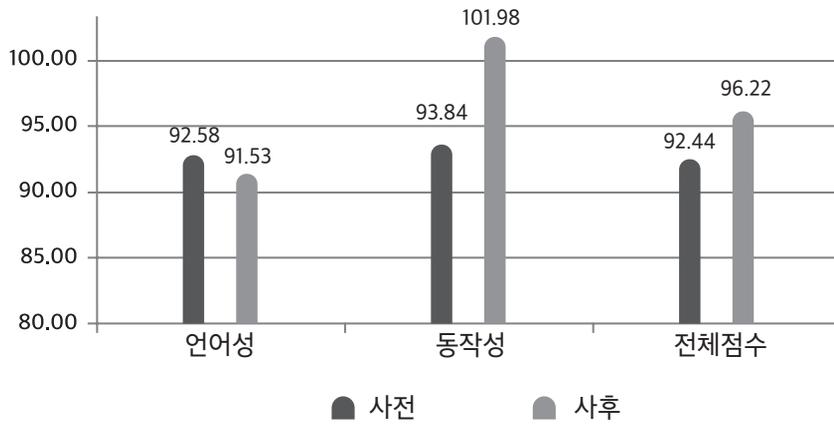
[표Ⅶ-3] 음악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일반현황_연령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9	1	1.8	1.8	1.8
10	4	7.3	7.3	9.1
11	12	21.8	21.8	30.9
12	10	18.2	18.2	49.1
13	9	16.4	16.4	65.5
14	7	12.7	12.7	78.2
15	7	12.7	12.7	90.9
16	5	9.1	9.1	100.0
합계	55	100.0	100.0	

전체적으로 지능점수는 크게 ‘언어성’과 ‘동작성’으로 나뉘는데 올키즈스트라에 참여한 55명의 아동들은 ‘동작성’에서 큰 향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 음악이 아동들의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성’이라는 것은 ‘지각추론지표’라고도 하는데 지각추론지표는 ‘언어성’에 비해 감각 운동적 요소, 정서적 요소, 유동성 지능을 반영하고 있다. 뇌기능적으로 볼 때 언어성은 보통 좌반구 기능에 동작성은 우반구 기능이 발달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음악을 통해 우반구 기능의 향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Ⅶ-1] 사전/사후 지능검사 점수 변화 5



[표Ⅶ-4] 지능검사 점수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구분	대응차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IQ언어 사전/사후	1.055	8.860	1.195	-1.341	3.450	0.883	54	.381
대응 2	IQ동작 사전/사후	-8.145	10.826	1.460	-11.072	-5.219	-5.580	54	.000
대응 3	IQ점수 사전/사후	-3.782	8.359	1.127	-6.042	-1.522	-3.355	54	.001

5) 동작성IQ, 언어성IQ, 전체IQ 각각의 평균은 100이고 표준편차는 15임.(출처 : 김계현 외(2004), 상담과 심리검사)

지능검사의 하위영역인 언어성과 동작성으로 나누었을 때 각 ‘언어성’과 ‘동작성’이 다루고 있는 소검사는 아래 표와 같다.

[표Ⅷ-5] 지능검사 소검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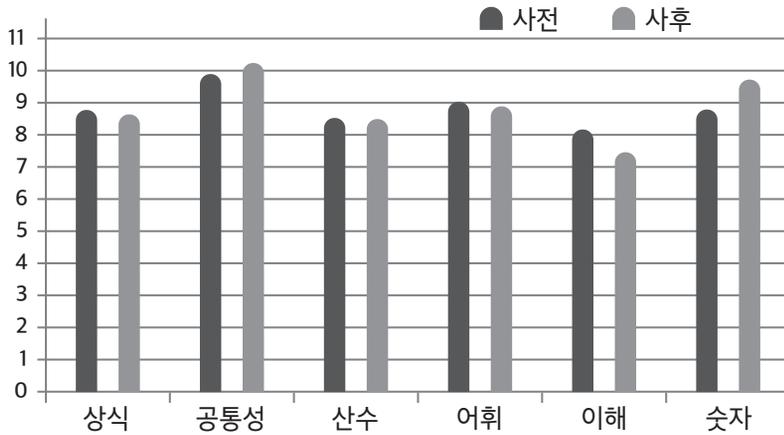
분류	소검사	각 하위 소검사가 측정하는 내용
언어성	상식	습득된 지식, 학업적 성취, 기억력
	공통성	언어적 개념화, 언어적 추론
	산수	수를 다루는 능력 및 주의집중력
	어휘	축적된 정보, 학습능력, 언어적 표현 능력
	이해	언어적 이해, 사회적 판단력
	숫자	주의력과 청각적 단기 기억 능력
동작성	빠진 곳 찾기	사물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변별, 시지각적 예민성
	기호쓰기	시각-운동 협응능력, 동작적 민첩성, 시각적 단기 기억능력
	차례 맞추기	계기적 정보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
	토막 짜기	시각-운동 협응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
	모양 맞추기	의미있는 자극에 대한 시지각, 종합능력

각 소검사 항목별로 평균점수를 사전/사후로 살펴보면 [표Ⅷ-6]과 같다.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검사에서도 ‘동작성’ 검사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성’ 중에서는 ‘숫자’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주의력과 청각적 단기 기억능력이 악기레슨 활동을 통해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검사 중 ‘이해’ 항목은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는데 언어적 이해, 사회적 판단력을 검사한 영역이며 하락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VII-2] 사전/사후 지능검사 중 '언어성' 부분 소검사 점수 변화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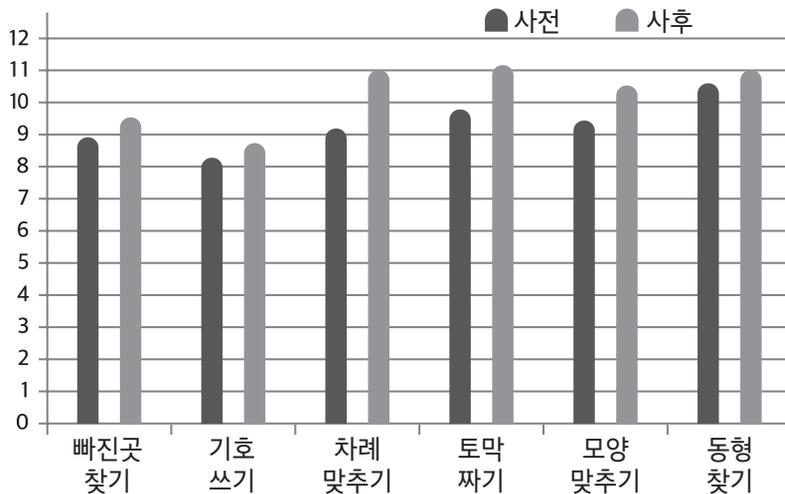
[표VII-6] 지능검사 중 '언어성' 점수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상식 사전/사후	0.182	2.237	0.302	-0.423	0.787	0.603	54	.549
대응 2	공통성 사전/사후	-0.255	2.335	0.315	-0.886	0.377	-0.808	54	.422
대응 3	산수 사전/사후	0.018	1.748	0.236	-0.454	0.491	0.077	54	.939
대응 4	어휘 사전/사후	0.182	1.954	0.263	-0.346	0.710	0.690	54	.493
대응 5	이해 사전/사후	0.709	2.536	0.342	0.023	1.395	2.073	54	<u>.043</u>
대응 6	숫자 사전/사후	-0.947	2.731	0.443	-1.845	-0.050	-2.139	37	<u>.039</u>

6) 각 소검사의 평균은 10이고 표준편차는 3임.(출처 : 김계현 외(2004), 상담과 심리검사)

동작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후에 향상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낸 하위영역은 ‘차례맞추기’와 ‘토막짜기’ ‘모양맞추기’이다. ‘차례맞추기’는 여러 색상의 그림들이 순서가 뒤섞인채 제시되고 아동이 논리적인 이야기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검사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림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토막짜기’는 카드에 그려진 모양을 지각하고 분석하며 토막을 가지고 카드에 제시된 모양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검사에서는 시각-운동의 협응능력과 시-지각 구성능력 및 공간지각 능력을 평가하며, 또한 운동능력과 색채 지각 능력도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모양맞추기’는 조각들을 완성된 모양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검사에서는 시각-운동 협응능력이 요구되는데, 근육 운동 능력은 시각적인 지각과 감각운동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⁷⁾ 아이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연습들이 아이들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나 시각(악보)-운동(연주) 협응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Ⅶ-3] 사전/사후 지능검사 중 동작성 부분 소검사 점수 변화



7) 신민섭(2005) [아동 정신 병리의 진단 평가]. 학지사

[표Ⅶ-7] 지능검사 중 동작성 점수 사전/사후 평균차이, T-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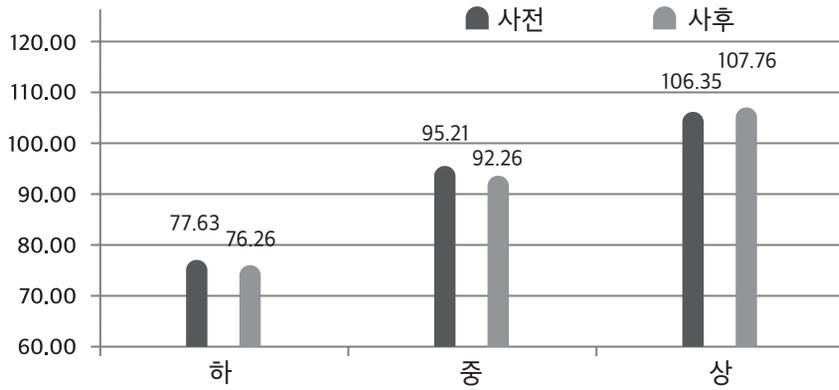
구분	대응차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빠진곳찾기 사전/사후	-0.618	2.711	0.366	-1.351	0.115	-1.691	54	.097
대응 2	기호쓰기 사전/사후	-0.436	2.402	0.324	-1.086	0.213	-1.347	54	.183
대응 3	차레맞추기 사전/사후	-1.764	2.434	0.328	-2.422	-1.106	-5.374	54	<u>.000</u>
대응 4	토막짜기 사전/사후	-1.364	2.189	0.295	-1.955	-0.772	-4.620	54	<u>.000</u>
대응 5	모양맞추기 사전/사후	-1.073	2.879	0.388	-1.851	-0.294	-2.763	54	<u>.008</u>
대응 6	동형찾기 사전/사후	-0.364	3.170	0.676	-1.769	1.042	-0.538	21	.596

지능점수 사전결과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각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사전점수를 기준으로 79점 이하를 하, 80~99점을 중, 100점 이상을 상으로 구분하여 그룹핑하였다. 동작성은 세그룹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점수는 사전점수가 '상'인 그룹에서만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동작성 부분이 향상되지만 전체적인 지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은 100점 이상의 아이들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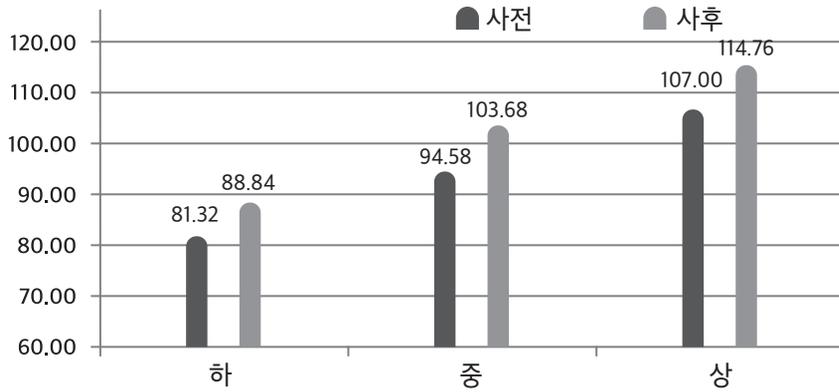
[표Ⅶ-8] 사전점수 상/중/하 별로 평균점수

점수별	언어성 사전	언어성 사후	유의 확률	동작성 사전	동작성 사후	유의 확률	전체점수 사전	전체점수 사후	유의 확률
하	77.63	76.26	0.591	81.32	88.84	<u>0.014</u>	77.00	80.42	0.131
중	95.21	92.26	0.117	94.58	103.68	<u>0.003</u>	94.16	97.42	0.158
상	106.35	107.76	0.432	107.00	114.76	<u>0.002</u>	107.76	112.53	<u>0.002</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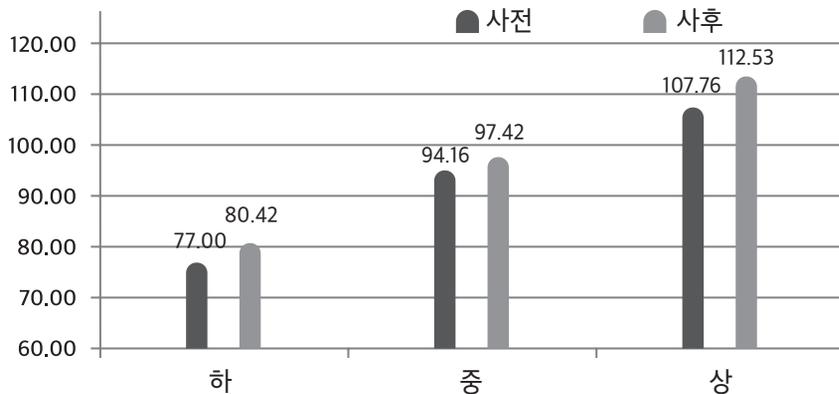
[그림Ⅶ-4] 사전점수 상/중/하별 사전/사후 언어성 점수



[그림Ⅶ-5] 사전점수 상/중/하별 사전/사후 동작성 점수



[그림Ⅶ-6] 사전점수 상/중/하별 사전/사후 지능전체 점수



Ⅷ. 올키즈스트라 중간종결 아동 분석

1. 중간종결 아동 일반 현황
2. 중간종결 아동과 사업참여 아동 비교
3. 중간종결 아동 설문 분석 결과

All
kids
tra.

1. 중간종결 아동 일반 현황

현재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에 참여하는 아동의 중간종결율은 평균 23%정도 된다. 음악 사업에 있어 참여아동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악을 통한 아동의 변화는 사업 초기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3년 이상 참여할 경우에 변화를 보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에 그만두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업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14~15년 사업기간 중 울키즈스트라에 참여했다가 그만두는 아동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이유를 분석해보았다.

종결하게 된 아동들의 악기를 배운 기간은 평균 16개월(1년4개월)로 1년 미만인 아동이 43.5%, 1~2년 사이인 아동이 29.4%로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상 된 아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전 1차 울키즈스트라 사업성과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1~2년 사이의 아동이 슬럼프를 많이 겪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진로를 결정하여 어쩔수 없이 악기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악기에 대한 흥미와 몰입에 돌입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Ⅷ-1] 울키즈스트라 중간종결 아동 사업 참여기간

참여기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37	43.5
1~2년	25	29.4
2~3년	16	18.8
3년 이상	7	8.2
합계	85	100.0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14, 15, 16세 즉 중학교1,2,3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 시기가 학교 공부에 좀 더 몰입해야 하는 시기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표Ⅷ-2] 올키즈스트라 중간종결 아동 일반현황_성별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남자	48	50.0	50.0	50.0
여자	48	50.0	50.0	100.0
합계	96	100.0	100.0	

[표Ⅷ-3] 올키즈스트라 중간종결 아동 일반현황_연령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7	1	1.1	1.1	1.1
8	1	1.1	1.1	2.1
9	1	1.1	1.1	3.2
10	2	2.1	2.1	5.3
11	8	8.4	8.4	13.7
12	11	11.6	11.6	25.3
13	12	12.6	12.6	37.9
14	15	15.8	15.8	53.7
15	15	15.8	15.8	69.5
16	14	14.7	14.7	84.2
17	7	7.4	7.4	91.6
18	4	4.2	4.2	95.8
19	3	3.2	3.2	98.9
22	1	1.1	1.1	100.0
합계	95	100.0	100.0	

[표Ⅷ-4] 올키즈스트라 중간종결 아동 일반현황_성적

성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꼴등(100%)	2	2.6	2.6	2.6
75%	21	26.9	26.9	29.5
중간(50%)	39	50.0	50.0	79.5
25%	12	15.4	15.4	94.9
1등(0%)	4	5.1	5.1	100.0
총계	78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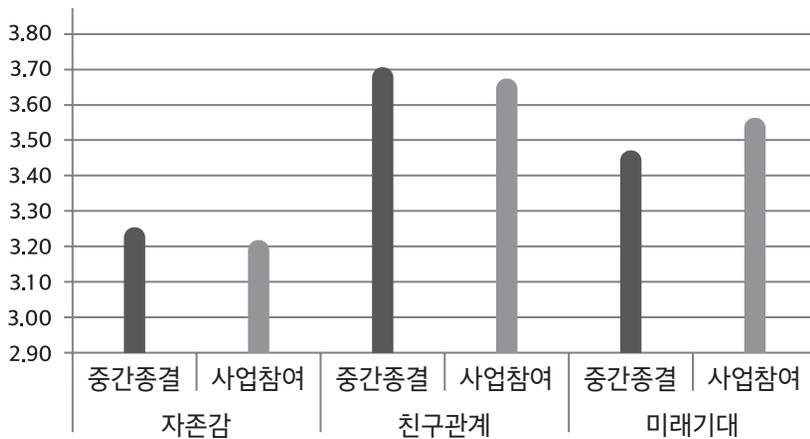
2. 중간종결 아동과 사업참여 아동 비교

중간종결 아동 그룹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아동 그룹을 구분하여 사전설문의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에 사업 시작 이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사업 참여 이전에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에 있어 두 그룹이 동질한 그룹으로 나타난다. 즉,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업 참여 이전부터 달랐던 그룹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Ⅷ-5] 중간종결 아동과 사업참여 아동의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기대 비교

중간종결여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자존감	중간종결	45	3.2505	.53262	.07940
	사업참여	544	3.2179	.68102	.02920
친구관계	중간종결	44	3.7045	.63983	.09646
	사업참여	554	3.6703	.83882	.03564
미래기대	중간종결	45	3.4778	.69776	.10402
	사업참여	546	3.5617	.82591	.03535

[그림Ⅷ-1] 중간종결 아동과 사업참여 아동의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기대 평균 비교



[표Ⅷ-6] 중간종결 아동 그룹과 사업참여 아동 그룹의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기대 비교 t-test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df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존감	등분산을 가정함	1.939	.164	.313	587	.754	.03259	.10409	-.17184	.2370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85	56.622	.701	.03259	.08460	-.13684	.20202
친구관계	등분산을 가정함	3.567	.059	.265	596	.791	.03427	.12939	-.21984	.2883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33	55.460	.740	.03427	.10283	-.17177	.24031
미래기대	등분산을 가정함	1.734	.188	-.662	589	.508	-.08388	.12672	-.33275	.1649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764	54.689	.448	-.08388	.10986	-.30407	.13630

3. 중간종결 아동 설문 분석 결과

음악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분석해보니, 음악을 그만두는 이유로는 학교 공부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24.4%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종결한 아동들이 본인의 성적을 표시한 설문 현황을 살펴보면 [표Ⅷ-4]와 같이 중간이라고 한 아동의 50%이며, 중간 이하의 성적이라고 표시한 아동이 29.5%로 울키즈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아동의 성적과 비교해 볼 때* 중간이라고 표시한 아동은 45%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중간 이하의 성적이라고 표시한 아동은 사업 참여아동은 18.3%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종결하는 아동들이 전체 사업 참여그룹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낮은 성적의 그룹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를 그만두기 때문으로 응답하였으며 참여아동이 이사를 가거나 센터를 그만두게 되면서 더 이상 배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음악 자체에 흥미를 별로 못느껴서’로 참여아동이 처음 악기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게 되나 막상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 자체에 별로 흥미를 못느껴서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레슨/합주/연습 등으로 인해 ‘자유시간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경우, ‘다른 진로를 결정해서’는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활동(체육, 미술 등)을 하기 위해 시간이 부족한 경우, 악기 실력이 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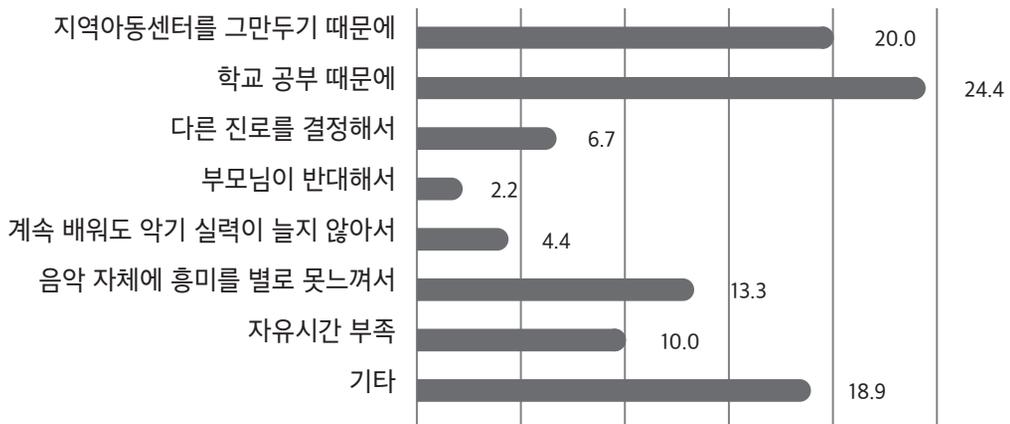
8) 울키즈스트라 사업 전체 참여아동의 성적 분포

성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플등(100%)	11	1.8	1.8	1.8
75%	99	16.5	16.5	18.4
중간(50%)	270	45.1	45.1	63.4
25%	182	30.4	30.4	93.8
1등(0%)	37	6.2	6.2	100.0
총계	599	100.0	100.0	

[표Ⅷ-7] 울키즈스트라 종결 사유

설문문항	빈도	퍼센트
지역아동센터를 그만두기 때문에	18	20.0
학교 공부 때문에	22	24.4
다른 진로를 결정해서	6	6.7
부모님이 반대해서	2	2.2
계속 배워도 악기 실력이 늘지 않아서	4	4.4
음악 자체에 흥미를 별로 못느껴서	12	13.3
자유시간 부족	9	10.0
기타	17	18.9
총 계	90	100.0

[그림Ⅷ-2] 울키즈스트라 종결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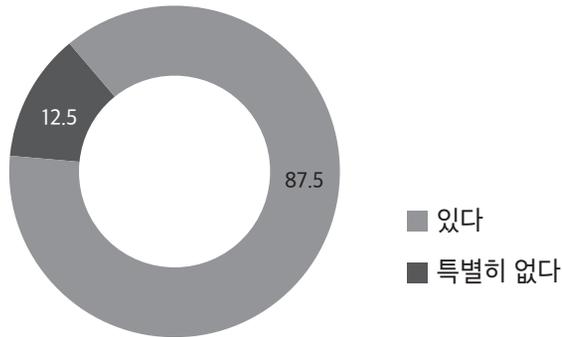


악기를 배운 것이 본인에게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우선 좋았던 점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87.5%였으며, 무엇이 좋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생겼다는 점’,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경험을 한 점’, ‘음악캠프나 합주 등 친구들과 같이 활동 할 수 있었던 점’ 등 3가지 이유가 약 30%씩 유사하게 나왔다. 참여아동들이 악기를 그만두게 되어도 악기를 배웠던 경험이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경험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Ⅷ-8] 악기를 배운 것이 본인에게 좋았던 점이 있는지 여부

설문문항	빈도	퍼센트
있다.	84	87.5
특별히 없다.	12	12.5
총 계	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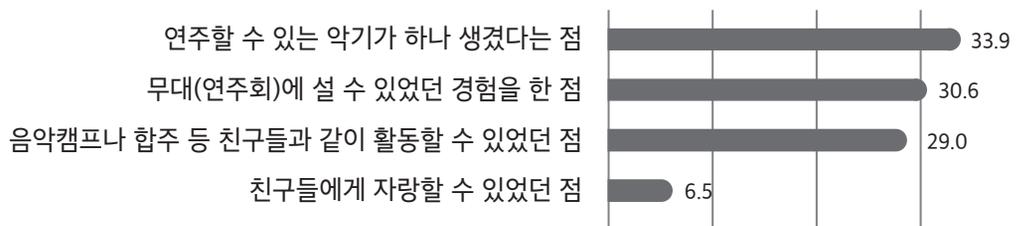
[그림Ⅷ-3] 악기를 배운 것이 본인에게 좋았던 점이 있는지 여부



[표Ⅷ-9] 악기를 배운 것이 좋았던 부분

설문문항	빈도	퍼센트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생겼다는 점	21	33.9
무대(연주회)에 설 수 있었던 경험을 한 점	19	30.6
음악캠프나 합주 등 친구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점	18	29.0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점	4	6.5
총 계	62	100.0

[그림Ⅷ-4] 악기를 배운 것이 좋았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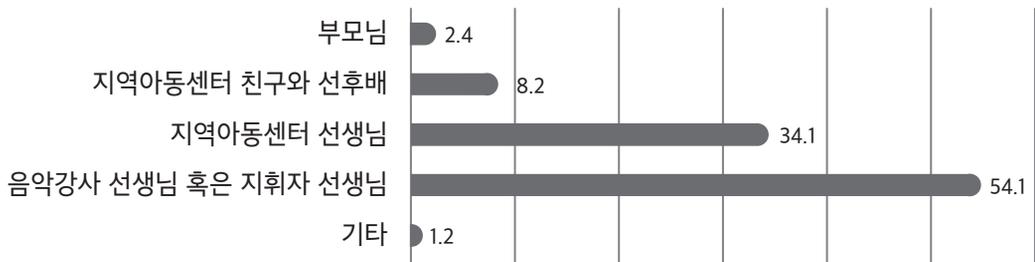


악기를 배우는 동안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군지 물어본 질문에는 ‘음악강사나 지휘자’라고 대답한 경우가 5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34.1%, 친구와 선후배, 부모님 등으로 나타났다. 레슨과 합주를 음악강사에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음악강사나 지휘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며,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비중이 29%로 참여 아동들이 음악을 배우는데 있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역할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Ⅷ-10] 악기를 배우는 동안 도움을 준 사람

설문문항	빈도	퍼센트
부모님	2	2.4
지역아동센터 친구와 선후배	7	8.2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29	34.1
음악강사 선생님 혹은 지휘자 선생님	46	54.1
기타	1	1.2
총 계	85	100.0

[그림Ⅷ-5] 악기를 배우는 동안 도움을 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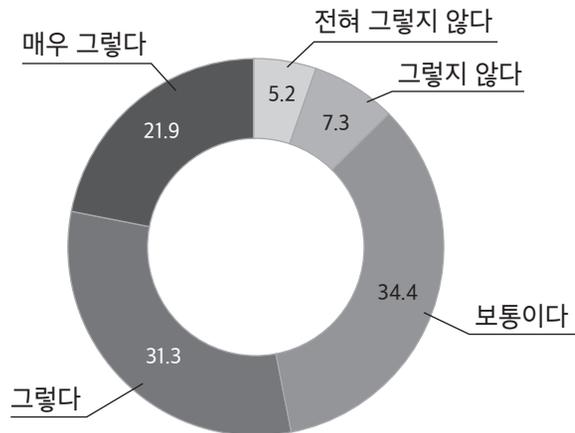


악기를 배우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 아쉬운지를 물어본 문항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3.2%, 보통이다까지 합할 경우 87.6%가 아쉽다고 응답했고 12.5%(12명)의 아동이 아쉽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쉽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의 수는 대략 악기를 배우면서 본인에게 좋았던 점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 수(12명)과 동일하였으며 그만두는 이유에서 ‘음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라고 응답한 아동 수와 동일(12명)하다.

[표Ⅷ-11] 악기 배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쉬운지

설문문항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5	5.2
그렇지 않다	7	7.3
보통이다	33	34.4
그렇다	30	31.3
매우 그렇다	21	21.9
총 계	96	100.0

[그림Ⅷ-6] 악기 배우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쉬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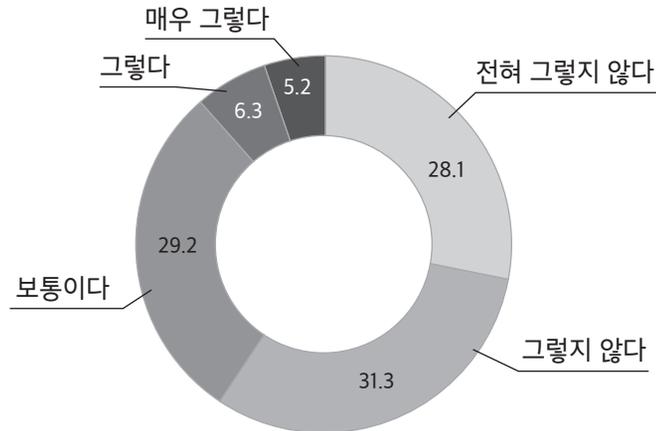


악기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동안 악기 배운 시간이 아까운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59.4%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까지 합치면 88.6%가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Ⅷ-12] 그동안 악기 배운 시간이 아까운지

설문문항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27	28.1
그렇지 않다	30	31.3
보통이다	28	29.2
그렇다	6	6.3
매우 그렇다	5	5.2
총 계	96	100.0

[그림Ⅷ-7] 그동안 악기 배운 시간이 아까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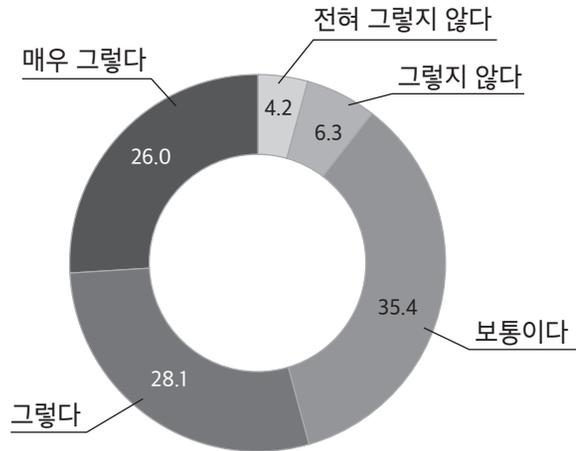


기회가 생기면 다시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여부에는 54.1%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까지 합하면 89.5%가 악기를 다시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즉, 다른 공부나 지역아동센터를 그만두는 등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악기를 그만두지만 악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Ⅷ-13] 기회가 생기면 다시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설문문항	빈도	퍼센트
전혀 그렇지 않다	4	4.2
그렇지 않다	6	6.3
보통이다	34	35.4
그렇다	27	28.1
매우 그렇다	25	26.0
총 계	96	100.0

[그림Ⅷ-8] 기회가 생기면 다시 악기를 배우고 싶은지



IX.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결과

1.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개요
2. 지역관악단 과정평가를 통한 기본현황
3.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결과

All
kids
tra.

1.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개요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이 운영되는 과정을 “로직모델”의 과정에 맞춰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만든 틀이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과정평가”이다. 아동·청소년 예술 프로그램의 평가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직모델’은 서비스의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고리를 그림의 형태로 표시하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도록 한 모델이다(올키즈스트라 사업의 로직모델은 p.24-25 참고). 로직모델은 사업의 투입, 과정, 산출, 성과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함께걷는아이들, 2013). 앞의 양적평가의 설문에 포함된 변수들도 이 로직모델의 ‘결과’에 맞추어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과정평가의 큰 틀 역시 로직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양적평가는 로직모델의 과정 중 결과(Output)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과정평가는 투입부터 활동(과정), 산출, 결과를 모두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며 앞의 장에서 언급된 양적평가결과가 ‘결과’에 포함되도록 서로 연동하여 디자인 되었다.

따라서 평가항목은 크게 I.투입, II.과정, III.산출, IV.결과로 구성되어있다.

‘투입’은 사업을 계획하고 세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악기와 비품은 잘 구비되었는지, 인력구성과 시설 공간 등은 적절하게 확보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투입’ 항목은 1.자원의 적절성과 2.서비스구조의 적절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0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었다. 1.자원의 적절성은 ① 재원의 효율성과 ② 악기 및 필요비품 자체보유 정도로, 2. 서비스구조의 적절성은 ① 인력구조의 적절성, ② 적절한 시설공간 확보로 구성되었다.

[표IX-1]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투입' 항목 내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점수
I. 투입 (20)	1. 자원의 적절성 (10)	① 재원의 효율성 (5) - 아동1인당 비용 - 투입시간 대비 1인당 비용	
		② 악기 및 필요비품 자체 보유 정도 (5)	
	2. 서비스 구조의 적절성(10)	① 인력구조의 적절성 (7) : 내실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부_3 : 대표기관 담당자의 사업 몰입도_4 사업협조, 관심도, 모임참여도 담당실무자의 전문성 및 투입시간	
		② 적절한 시설공간 확보 (3) : 레슨장소, 연습장소, 합주장소 공간 확보	

‘과정’ 항목은 지역관악단이 실제 운영되는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항목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기준이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준수성),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노력성), 강사 활동에 대한 부분(강사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 준수성은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제공한 규정이나 지침의 준수, 각 지역관악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준수,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제공한 교재와 앙상블집 활용 여부, 예산집행의 계획성과 절차 준수로 구성되었다. 2. 노력성은 기초음악교육, 레슨 및 합주 투입시간, 정기적인 연습, 출석율과 지속율,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다. 3. 강사활동의 적절성은 강사의 전문성, 강사의 본 사업목적 이해도, 강사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표IX-2]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과정’ 항목 내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점수
II.과정 (40)	1.준수성(15)	① 관련 규정, 지침의 준수(4) : 시행지침 준수, 관련서류 작성, 서류제출협조, 평가관련서류 협조 등	
		② 사업계획서 준수(3)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 준수 여부	
		③ 커리큘럼 준수(4) : 올키즈스트라 커리큘럼 준수여부	
		④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절차 준수(4)	
	2.노력성(15)	① 기초음악교육, 레슨 및 합주 투입 시간(4)	
		② 정기적인 연습(3)	
		② 출석율, 지속율(6)	
		③ 동기부여 프로그램(2)	
	3.강사활동의 적절성(10)	① 강사의 전문성(4) : 강사이력, 강사 교육 이수시간	
		② 강사의 본 사업목적 이해도(3)	
③ 강사에 대한 만족도(3)			

세 번째로 ‘산출’ 항목은 투입, 과정을 거쳐 단기적인 결과물로 아동의 음악실력 향상과 사업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참여아동의 음악실력은 아동이 처음 오디션 할 때의 박자, 악보읽기, 연주를 평가하고 음악캠프 때 다시 평가하여 향상점수로 측정하였다. 상위관악단 참여정도는 서울, 경기지역의 관악단 중 상위관악단 참여율이 낮을 경우 감점으로 적용하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들이 설문을 통해 사업 만족도를 측정한 것과 상시적으로 강사와 기관 담당자의 면접을 통한 사업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표IX-3]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산출' 항목 내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점수
Ⅲ.산출 (15)	1.음악실력 향상 정도(10)	① 참여아동의 음악실력 향상정도(10)	
		② 상위관악단 참여정도(감점처리)	
	2.사업만족도(5)	① 참여아동의 사업만족도(3)	
		② 관련자(음악강사, 기관담당자)의 사업 만족도(2)	

‘결과’ 항목에서는 1.사업성과와 2.영향력 및 기여도로 좀 더 중장기적인 효과로 평가하였는데 1. 사업성과는 앞의 양적평가결과에서 측정된 참여아동의 자존감, 사회성, 미래기대 등이 사후에 사전에 비해 향상되었는지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2.영향력 및 기여도로는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하였다.

[표IX-4]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결과’ 항목 내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점수
Ⅳ.결과 (25)	1.사업성과(17)	① 참여아동의 변화정도(12) (자존감, 사회성, 미래기대)	
		② 관악단 운영의 지속가능성(5) : 안정적인 운영조직 구성, 재원확보 등	
	2.영향력 및 기여도(8)	① 지역사회 오케스트라 인지도 향상(6) 홍보노력, 지역사회의 관심, 인지도 향상	
		②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2) - 지역사회 자원봉사, 사례발표 등	

2. 지역관악단 과정평가를 통한 기본현황

1) 평균 관악단 참여아동과 악기보유비율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의 경우, 평균 40명 이상의 아동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월별로 다소 참여아동의 변동이 있어 이를 평균했을 때, 전체 평균 48.0명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었고, 지역별로는 은평이 49.44명, 안양군포가 52.25명, 청주가 53.5명, 김해가 44.25명, 금산이 41.56명으로 모두 40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은평, 안양군포, 청주 지역아동의 수가 평균 50명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관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는 함께걷는아이들에서 일부 대여하고 있으며, 자부담으로 가능한 한 구입하여 자체 보유하도록 권하고 있다. 은평, 금산, 안양군포 순으로 높은 악기보유비율을 보였으며, 금산은 7%로 악기 보유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IX-5] 올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참여아동수 및 악기보유비율

구분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
평균참여아동수	49.44명	52.25명	53.5명	44.25명	40.56명
악기보유비율	88.8%	80.8%	72.1%	84%	7%

2) 레슨시간과 합주시간

올키즈스트라는 기본적으로 주1회 2시간 악기별 레슨과 월2회 2시간의 합주를 기본으로 총 월12시간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레슨 및 합주 횟수를 살펴본 결과 월 레슨 및 합주 횟수가 6회를 넘고 있으며 김해의 경우 11회를 넘게 운영하고 있었다. 레슨시간으로 살펴보면 금산을 제외한 지역은 1회 2시간을 운영하며, 금산은 1.5시간을 운영하여 다소 낮은 시간으로 나타났다.

[표IX-6]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월 레슨 및 합주시간

구분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
아동1인당월레슨 +합주횟수	3.69+3.69= 7.38회	3.62+2.44= 6.06회	3.63+2.13= 5.76회	4.03+7.19= <u>11.22회</u>	3.4+3.27= 6.67회
월 총시간	14.8시간	12.1시간	11.5시간	22.4시간	10.0시간

3) 출석율과 중간종결율

아동의 출석율은 평균 88%로 비교적 높은 출석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청주가 94.85로 가장 높았다. 금산의 경우 7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 좀 더 출석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종결율은 평균 23%이며 청주가 20%로 가장 낮은 종결율을 보이고 있다. 앞단원에서 종결아동에 대한 설문에서 분석하였듯이 참여아동의 종결사유는 학업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센터를 그만두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표IX-7]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출석율 및 중간종결율

구분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
출석율	93%	93%	<u>94.8%</u>	89.3%	71%
중간종결율	20.6%	24.6%	<u>20%</u>	27%	22.6%

4)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연계

자원봉사 등의 인적자원 동원 수는 크게 많지 않으나 물적자원 동원 수는 지역의 후원을 모집하면서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행사에 연주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 안양군포와 김해가 15건, 14건, 은평이 10건 등으로 잦은 외부 행사를 통해 지역에 관악단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IX-8]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지역사회 행사

구분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
인적자원 동원수	2	-	-	2	2
물적자원 동원수	2	7	2	7	0
	10	15	6	14	2
지역사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위한 작은음악회 - 청소년 문화제 - 현대백화점 악기후원 감사연주 행사 - 어린이날 선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 연대 송년 문화제 - 세월호 추모콘서트 - 안양시 어린이날 큰잔치 - 군포시 어린이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어린이 큰잔치 - 청주 힐링 나눔콘서트 - 제1회 충북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 페스티벌 - 청주직지축제 - 지역아동센터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브남성 합창단공연 - 가야문화축제 축하공연 - 어린이날 식전행사 - 이웃사랑 바자회 - 김해시 여성 자치대회 - (주)다올인베스트 송년의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 한국타이어 창단행사 - 금산 생활 문화축제

5) 음악강사부분

음악강사는 해당악기를 전공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함께걷는아이 들에서 년 2회 제공하는 아동지도, 교육 관련 강사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이 주로 서울지역에서 있어서인지 은평 강사들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김 해 역시 먼 지역이지만 80% 이상의 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금산의 경우 57%로 좀 더 참여 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아동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5점 만점에 모두 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IX-9]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음악강사 부분

구분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
강사교육참여도	<u>87.5%</u>	75%	78%	80%	57%
아동의강사 만족도(5점만점)	4.32	4.31	4.49	4.44	<u>4.59</u>

6) 아동의 사업만족도

참여아동의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4.0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김해가 4.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IX-10]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음악실력 향상점수 및 사업만족도

구분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
참여아동의 사업 만족도(5점만점)	4.42	4.08	4.36	<u>4.69</u>	4.40

7) 지역내 홍보건수

각 지역관악단에서 자체 홍보물(리플렛)을 만들거나 각 지역신문에 관악단 행사와 관련한 기사가 나는 등의 홍보 성과를 보였다. 금산관악단의 경우 2014년 6월에 창단되면서 관련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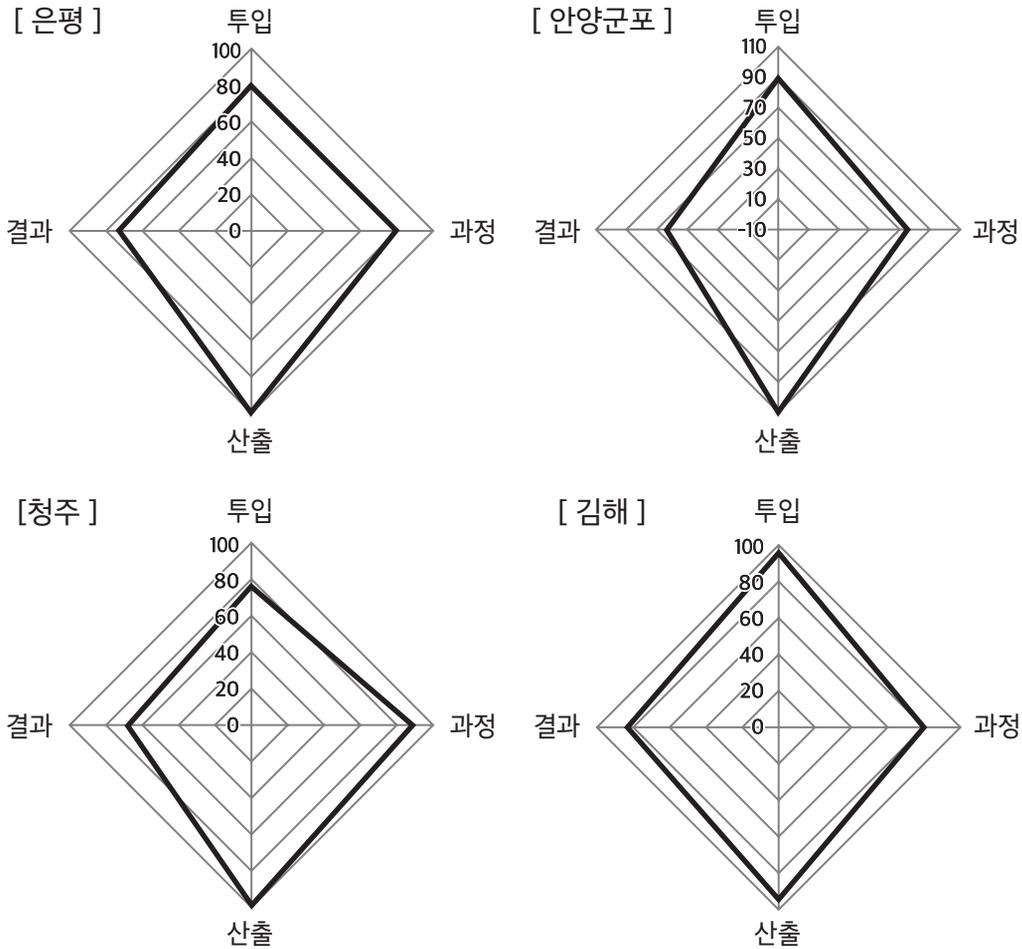
[표IX-11]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 홍보

구분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금산
홍보건수	-	1건	3건	2건	<u>4건</u>
보도내용	- 안양군포_ KBS특집다큐 '아름다운 동행' 방송 - 김해_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방송 - 한국타이어, '울키즈스트라 금산·추부관악단' 창단 (2014.06.24, 아이뉴스24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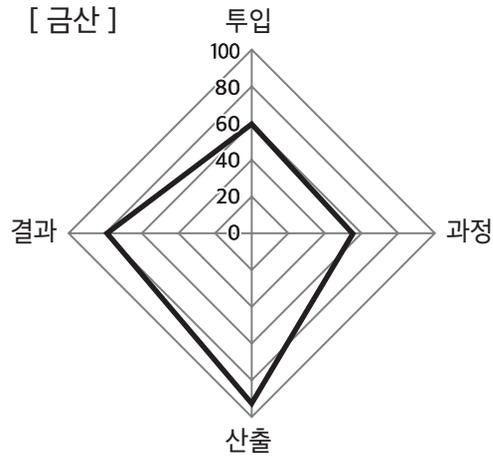
3. 지역관악단 과정평가 결과

각 투입(20점), 과정(40점), 산출(15점), 결과(25점) 4개의 항목이 각기 다른 배점으로 총점은 산출되었으나 각 항목을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았다. 투입에서는 김해 관악단이, 과정에서는 청주 관악단이, 산출에서는 안양군포 관악단이, 결과에서는 김해 관악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모두 전반적으로 투입-과정-산출-결과의 과정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산 관악단의 경우 가장 나중에 시작한 관악단으로 투입, 과정 영역이 타 관악단에 비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IX-1] 울키즈스트라 은평, 안양군포, 청주, 김해 관악단 과정평가결과



[그림IX-2] 울키즈스트라 금산 관악단 과정평가결과



X. 올키즈스트라 사업성과 분석의 시사점

All
kids
tra.

1. “음악”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음악 활동을 한 아동의 경우 사후에 사전에 비해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두 상승하였으나 음악을 하지 않은 아동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하게 향상한 것은 친구관계에 있어 명확한 성과를 보였다.

2. 음악 프로그램 규모별(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 성과의 차이는 없었다.

음악 프로그램 규모별(관악단, 미니오케스트라, 악기레슨)로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의 성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음악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음악 프로그램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고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변수가 제한적이고 합주의 효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현악보다는 관악이, 정기적인 연습을 한 아동이,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아동이, 초등학생 아동이 음악을 통해 성장하였다.

음악 프로그램이 참여아동의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악기별로는 현악보다는 관악기 아동이, 금관보다는 목관 악기의 아동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습의 경우에는 정기적 연습을 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사이의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정기적 연습을 한 아동은 자존감, 친구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 모두에 있어 사후에 사전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낸 반면, 비정기적 연습인 아동은 전혀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이렇듯 연습은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성적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아동만 자존감, 친구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아동의 경우 친

구관계가 오히려 사후에 유의미하게 떨어져서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청소년보다 초등학생의 향상이 눈에 띄었으며, 그러나 이는 이미 청소년 아이들이 사전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초등학생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울키즈스트라 활동을 통해 참여아동의 지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동작성이 향상되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음악을 전혀 배워보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사후에 지능검사(웍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지능의 향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동작성부분에 큰 향상을 보였다. 동작성 중에서도 하위영역으로 살펴보면 ‘차례맞추기’, ‘모양맞추기’, ‘토막짜기’로 협응능력과 예측하는 능력 등이 개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악기연주, 합주활동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의 향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5. 울키즈스트라 활동에 중간종결한 아동의 경우, 학업과 이사 등의 이유로 종결하였으며 사업참여 1년 안에 가장 많이 그만두고 있었다.

울키즈스트라 활동에 중간에 종결하는 아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결아동은 1년 미만에 가장 많이 그만두며 평균 16개월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 사유는 학업, 이사 등으로 인한 센터 종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결아동들은 악기는 그만두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유익하였고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6. 울키즈스트라 지역관악단은 적절한 규모와 지침에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었다.

로직모델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과정평가를 통하여 지역관악단이 적절한 규모와 지침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투입에서는 김해관악단이, 과정에서는 청주관악단이, 산출에서는 안양군포관악단이, 결과에서는 김해관악단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첨부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소개
- 2015년 올키즈스트라 아동 설문지
- 올키즈스트라 사업 종결 설문 및 신청서

All
kids
tra.

[부록1]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소개

미션 및 비전

■ 미션 ■

함께걷는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 비전 ■

- 아동·청소년의 인성, 지성, 감성의 성장을 돕는 문화, 예술, 교육,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 단발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구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실천분야의 연구를 지속합니다.

■ 2009년 ■

- “베토벤 바이러스를 찾아라” 음악지원 프로그램 진행 (위탁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우리생애 최고의 열공” 교육 프로그램 진행(위탁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제1회 정기연주회 개최

■ 2010년 ■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창립 발기인 총회(5월)
- 법인설립허가(6월)
- 홈페이지 및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7월)
- 문화소의 아동·청소년 음악지원 프로그램 “Music With Us” 직접 진행
 - 은평관악단 창단
 - 김포 아인스 관악단 창단
 - 안양군포 위풍당당 관악단 창단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프로그램 “Study With Us” 직접 진행

■ 2011년 ■

- 제2회 정기연주회 개최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버스 “Grow With Us” 진행(1월)
-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밥상” 진행(2월)
- 아동 그룹홈 긴급구호사업 진행(9월)
- Withus Wind Orchestra(상위관악단) 창단 및 운영(11월)

■ 2012년 ■

-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2월)
- 학습부진아동 지원(4월)
- 음악지원사업 17개소 지원(4월)
- 중등 학습지원사업 42개소 지원(4월)
- 음악지원사업 명칭변경(Music With Us→Allkidstra, 7월)
- 학습지원사업 명칭변경(Study With Us→Allkidstudy, 7월)
- 거리청소년 의료지원사업 진행(8월)
- 제4회 정기연주회 개최(11월)
- 보조금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사업 진행(12월)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개소

■ 2013년 ■

- 긴급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 급식비지원 '십시일밥' 진행(2월)
- Allkidstra 사업성과보고서 발간(2월)
- Allkidstudy 3Rs학습지원 기관 30개소 협약(3월)
- Allkidstra 지역관악단 운영주체 4개 협약(3월)
- Allkidstra 음악교육지원 기관 15개소 협약(3월)
- Allkidsmile 기획사업 명칭 확정(3월)
- Allkidsmile 저소득층 문화외식체험프로그램 제1차 '할머니의 요술램프' 진행(4월)
- Allkidstra 음악전공생 지원(5월)
- EXIT Bus 해변아웃리치 진행(7월)
- Allkidsgift 악기기부 캠페인 진행(8월)
- Allkidstudy 제1회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 운영(10월)
- 제1회 음악교육기관네트워크(AMENC) 컨퍼런스 개최(10월)
-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11월)

■ 2014년 ■

- Allkidstudy 3Rs학습지원 기관 31개소 협약(1월)
- Allkidstudy 제2회 3Rs학습지원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 운영(2월)
- 노재원·조재선 추모기금 조성(3월)
- Allkidstra 음악전공생 장학기금 조성(3월)
- Allkidstra 꿈나무반 개설 및 운영(4월)

- EXIT Bus 부천 사업 종료 및 신림역 운행 시작(5월)
- Allkidstra 상위관악단 제주국제관악제 참가를 위한 클라우드펀딩 모금(5월)
- Allkidsmile 제2차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진행(5-6월)
- Allkidsmile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지원(6월-12월)
- Allkidstudy 상위관악단 제주국제관악제 참가(7월)
- ISME(International Society for Music Education) 31st 국제대회에서 Allkidstra 사업성과논문 발표
- Allkidstra 2014년 지원기관 선정(8월)
- Allkidsmile 요술램프 클라우드펀딩 모금(9월)
- 추계아동복지학회 Allkistra 연구발표(10월)
- Allkidsmile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지원(10월-12월)
(Caring for Carer,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Allkidsmile 제3차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진행(10-12월)
- Allkidstudy 제1회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 start)’ 시상식 및 시화전(10월)
- Allkidstudy 제3회 3Rs학습지원사업 전문지도교사 양성과정 운영(11월)
- Allkidsmile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공모(11월)
- 제6회 정기연주회 ‘선물’ 개최(12월)
- Allkidsgift 악기나눔 캠페인(연중 수시)

■ 2015년 ■

- Allkidstudy 35개소 협약(1월)

- Allkidstudy 기초교육(2월)
- Allkidsmile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참여기관 협약(2월)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2013-14년 Allkidstra 사업성과 보고서 발간(2월)
- 제1회 Allkidstra Festival 개최(3월)
- 제1회 후원 감사의 밤 '맛있는 함걸아, 후원의 맛'(4월)
- 함께걷는아이들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감사패 수령(4월)
- Allkidsmile 제4차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슬램프' (5-7월)
- Allkidstudy 3Rs학습지원사업 기관 간담회(7월)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정교육(7월)
- Allkidsmile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사업 'Caring for Carer'(9월)
- 올키즈서포터즈 발대식 및 OT(9월)
- 2015 하이서울페스티벌 협력프로그램 '즐거운 올키즈스트라' 홍보 부스 운영(10월)
- Allkidstudy 제1회 창작동시대회 '시작(詩作, start)'(10월)
- Allkidstra 상위관악단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충전콘서트' 야외 연주 (10월)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10월)
- 기초학력 향상 토론회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개최(10월)
- 제7회 정기연주회(11월)
- Allkidsmile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사업 평가 워크숍(12월)
- 함께걷는아이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2월)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안산지역, 신림지역 송년 파티(12월)

주요사업

○올키즈스트라(Allkidstra)○

‘All(모든) kids(아이들)의 오케스트라(Orchestra)’를 뜻하는 올키즈스트라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악기지원, 악기레슨, 합주, 관악단 활동의 경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통합적인 음악교육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키즈스터디(Allkidstudy)○

‘All(모든) kids(아이들)의 학습’을 뜻하는 올키즈스터디 사업은 잠재능력이 있음에도 저소득 또는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기초학습 부진이 누적되는 아동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발단계에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학습부진아동에게 3Rs(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를 1:1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Exit Bus(움직이는 청소년센터)○

학교와 가정이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거리에서 직접 만나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쉼터사업입니다. 먹거리, 의료, 긴급상담, 시설연계 등의 위기지원과 자립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올키즈스마일(Allkidsmile)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와 이슈에 맞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 나만의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는 ‘요술램프’
- ◆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지원사업(Caring for Carer)
- ◆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자몽(自夢)’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

함께걷는아이들의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효과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올키즈스트라” 설문지 (사후)

작성일자		No.	
지역		지역유형	

※ 작성하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입니다.

본 설문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시행하는 설문이니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문의 :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유원선(02-522-7935)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

소속센터명		이름	
학년(나이)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레슨받는 악기는?		레슨 선생님의 성함	
레슨받은 기간은? *올키즈스트라에서 배운 기간만 포함	<input type="checkbox"/>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2년 <input type="checkbox"/> 2년~3년 <input type="checkbox"/> 3년~4년 <input type="checkbox"/> 4년~5년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악기 연습하는 횟수는?	<input type="checkbox"/> 1) 매일 <input type="checkbox"/> 2) 주 1~3회 <input type="checkbox"/> 3) 레슨받기 전과 후 잠깐 연습 <input type="checkbox"/> 4) 비정기적으로 연습함(연주회, 지역공연행사 등이 있을 때) <input type="checkbox"/> 5) 연습없이 레슨만 받음		
학교 성적 (해당되는 곳에 √표)			

♥ 여러분의 평상시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시해주세요.

	질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정말로 그렇다 ⑤
1	나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2	나는 친구가 많다.					
3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4	나는 잘 하는 것이 별로 없다.					
5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6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7	지금 그대로의 나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8	대부분의 다른 애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					
9	나는 지나간 일보다 미래의 일에 더 관심이 간다.					
10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					
11	나는 친구들과 쉽게 잘 지내는 편이다.					
12	나는 무슨일을 할 때 별로 잘하지 못한다.					
13	다른 친구들이 나를 쉽게 좋아하는 편이다.					
14	나는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자주 상상한다.					
15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만큼은 하는 편이다.					
16	다른 애들이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17	대체로 나는 미래 지향적이다.					
18	다른 사람들이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	내가 다른 애들보다 친구가 더 많다.					
20	나는 항상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상상하곤 한다.					
21	나는 뛰어난 점이 많은 사람이다.					
22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다.					
23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뛰어나다.					
24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25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잘하는 편이다.					

올키즈스트라 사업 종결 설문 및 신청서

1. 기본사항

이름		학년(나이)		
소속센터		성별		
악기		강사명		
악기배운기간	()년 ()개월	종결신청일		
학교 성적 (해당되는 곳에 √표)				

2. 악기 배우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 ___ ① 지역아동센터를 그만두기 때문에(이사 등)
- ___ ② 학교 공부 때문에(야간자율학습(방과후수업)과 겹침, 고학년이 되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등)
- ___ ③ 다른 진로를 결정해서(기술, 체육, 미술 등 다른 진로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 ___ ④ 부모님이 반대해서(부모님이 더 이상 배우지 못하게 하셔서)
- ___ ⑤ 강사선생님이 싫어서
- ___ ⑥ 계속 배워도 악기 실력이 늘지 않아서
- ___ ⑦ 음악 자체에 흥미를 별로 못느껴서
- ___ ⑧ 자유시간 부족(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 ___ ⑨ 기타 _____

3. 그동안 악기를 배운 것이 본인에게 좋았던 점이 있는지?

____ ① 있다.

____ ② 특별히 없다.

→ 위의 ①번을 택한 경우에만 응답

3.1 악기를 배운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부분은?

____ ①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생겼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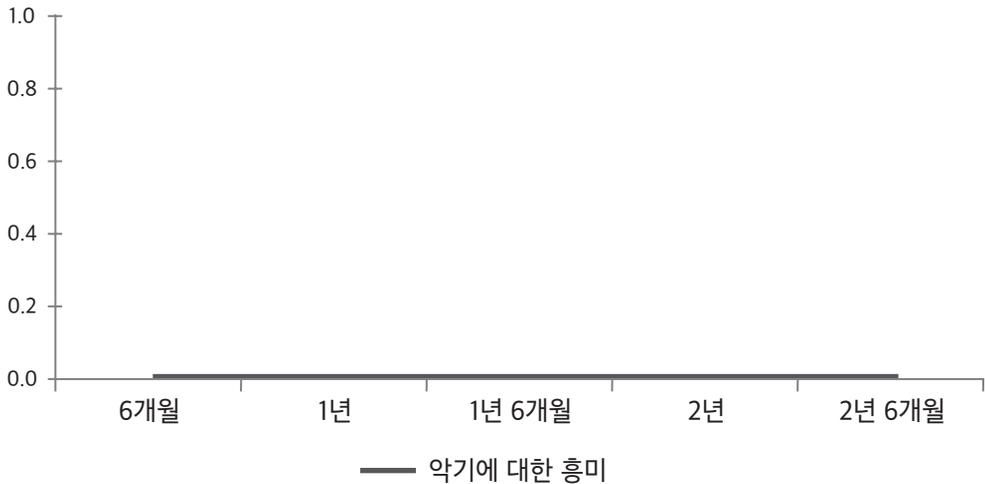
____ ② 무대(연주회)에 설 수 있었던 경험을 한 점

____ ③ 음악캠프나 합주 등 친구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었던 점

____ ④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점

____ ⑤ 기타 _____

4. 악기를 처음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의 악기에 대한 흥미도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5. 악기를 배우는 동안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은?

____ ① 부모님

____ ② 지역아동센터 친구와 선후배

____ ③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____ ④ 음악강사 선생님 혹은 지휘자 선생님

____ ⑤ 기타 ()

6.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질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 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악기 배우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 너무 아쉽다.					
2	악기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3	그동안 악기 배운 시간이 너무 아깝다.					
4	기회가 생기면 다시 악기를 배우고 싶다.					
5	악기를 배우는 동안 좋은 기억보다 힘들고 안좋은 기억이 더 많다.					

7. 센터 담당 선생님 추가 코멘트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종결하고자 하며 종결 후 1년 동안 올키즈트라 단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연구진

유원선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선임연구원

황다은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연구원

조희경 ◦ 울키즈사회실천연구소 소장

함께걷는아이들 울키즈스트라팀 김현주·오솔

2014-15 Allkidstra 사업성과보고서

발 행 일 2016년 5월 31 일
발 행 처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부설 올키즈사회실천연구소
발 행 인 조순실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23 801호
전 화 02. 522. 7935
팩 스 02. 522. 7930
홈 페이지 www.withu.or.kr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